

시티스케이프 -이젠 '부동산 투자'도 원스톱 쇼핑으로 즐기자!!

온라인 무료
사전등록 진행중!

글로벌
컨퍼런스
동시개최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인천송도개최
2015
부동산투자박람회
컨퍼런스동시개막
6.12~14
송도 컨벤시아 전관
세계 정상급 글로벌 투자자
국내·외 랜드마크 개발사업
프로젝트전시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www.cityscapekorea.co.kr

02-360-4260~3

6월 8일(월) 신청마감

동아시아 최강 부동산투자 박람회 시티스케이프 코리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리투아니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주요국 글로벌 기업
들의 대거 참여와 함께 **세계 부동산시장을** 선도할 최신 개발 상품과 트렌드·첨단 정보를
제공하는 **컨퍼런스 및 포럼**도 동시에 개최 됩니다. 시티스케이프는 부동산개발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한 마켓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 글로벌 부동산투자의 최적의 장소!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년 6월 12일-14일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플래티넘스폰서



골드스폰서



실버스폰서



컨텐츠 파트너



협력 파트너



주최



주관



굿모닝
Good Morning
INCHEON
인천
2015 **06**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06

인천광역시



파도소리 헤치고

김기림 _ 1945

꽃바다
깃발바다
파도소리 헤치고
밀물쳐 들어온다
띠끌 쓴 기동부대 해방의 병사들이
오만한 요새선과 철조망
실색한 포로 꺾어진 총칼 떼미 박차흠으며

잃어버렸던 조국의 아침이다
눈물 건고 쳐다보아라 형제들아
산맥과 거리와 마을마다
독사처럼 서렸던 사슬도 돌 벽도 쇠창살도
민족의 핏줄에 깊이 박혔던 표독한 이빨도 발톱도
갑갑하던 화약 연기와 함께 하루 아침 스러졌다
화려한 아침
고대하던 태양이다

하늘가에서
먼나라에서
옥중에서
채찍 아래서 창끝에서
이름없는 전장에서
눈감치 못한 채 꺼꾸러진 형제들
인제야 모다 한 번씩만이라도 얼굴 돌려
뚫어진 안공에 비치는
플리온 조국의 일어서는 모양 바라보라
악물린 이빨 벌려 웃어보라

피엣킨 구절 구절
떨리는 글장
빼뚫어진 역사의 여울물소리
아세아의 밤중에 사무친 지 몇몇해나
잠졌던 바다 바다
오늘은 침략의 흠반이 아닌 항구마다
해방하는 함대 자유의 병사들이 들어온다

노래소리
파도소리
목메인 만세소리 헤치며

거리거리
마을마다 부두마다
꽃바다
깃발바다
만백성 흐렸던 마음에 떠오르는
다시 돌아온 그립던 모습
웃음 띄우는 조국의 얼굴아
아침빛 비단폭에 감아
새 시대의 길 앞에 받들어 올리는
꽃뭉음 하나
정초히 나부낀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바로북, 북큐브,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포커스 2015 세계교육포럼 성공 개최	06
인천의 섬 무의도 하나개 해변	08
니하오 유커 영종도 명소	14
6.25와 인천 황해도 사람들의 인천 피란사	20
인천의 국제시장인 '중앙시장'과 황해도 사람들	23
하트이슈 국내 첫 수륙양용 버스 운행	28
내 길 내 일 상상작은도서관 대표 정춘진	32
까치발로 본 인천 ⑥ 수도권산 → 송림동	34
CULTURE INFO	38
NEWS BRIEF	42
COUNCIL NEWS	4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50
INFO BOX	52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56
이 달의 책	57
모닝 커피 한잔 전선영 인천스마일센터장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
(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성·김성환·김상덕·유창
호(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06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8



COVER STORY

장미의 계절입니다. 인천시의 시화(市花)는 장미입니다. 예전엔 시에서 시화인 장미를 넣어 그린 엽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그리운 아에게 고운 사연을 담은 예쁜 엽서를 띄워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감동으로 전해질 겁니다. 인천시 상징물은 시화인 장미 외에도 시목(市木)은 목백합, 시조(市鳥)는 두루미입니다.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취업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 남구일자리지원센터(880-4387, 7415, 7939)를 통해 일자리 매칭,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점심시
간에도 가능한가요?

↳ 시 민원여권과에 확인한 결과, 점심시간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
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이나타운을 관광하고 싶은데, 안내소를 알려주세요.

↳ 차이나타운 인근에 있는 인천종합관광안내소(777-
1330)를 안내해 드립니다. 차이나타운과 가까이 있는
월미도 등의 관광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분양받고 싶습니다.

↳ 인천 유기동물보호소(cafe.daum.net/inchunanimal,
515-7567)에 문의하시면, 유기견을 분양받으실 수 있
으며 보호소 후원과 봉사활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그건 이렇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정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이번에는 ‘남동구 인천대공원 캠핑장의 운영 목적과 야영장 등록신청 주체’에 대한
해명을 해드립니다.

‘인천대공원 캠핑장’ 관련 오보

‘남동구 인천대공원 캠핑장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 “인천시 남동구가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서 접수한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반려 처리했다.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당초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한 목적과 달리 민간업체를 선정해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야영장을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2011년 공원조성계획(변경)에 의한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으로 조성 및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 도시공원에는 야영장이 휴양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공원시설 야영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야영장업 등록신청 주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위임, 위탁(계약)의 내용에 의거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인천대공원 야영장 등록 신청은 야영장 운영 사용, 수익자인 (주)제이알산업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김동현(55·학원 원장)

추억을 찾아준 ‘굿모닝인천’ 곳!

화천, 대구, 서울, 진해, 원주 돌아 다시 서울... 그리고 인천.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인연을 맺은 인천은 그 후로 46년 간 김동현 원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떠돌이 학 교생활로 너털너털해져 가던 군인의 아들을 인천은 참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대학, 직장생활은 서울에서 했지만, 잠을 재워주는 곳은 언제나 인천이었다. 그런데 잊고 있었다. 버스비 아껴 군것질하며 걷던 동인천~송림동~도화동 그 길, 사생대회 때마다 스케치북 메고 올랐던 자유공원, 송도유원지의 방갈로, 300원짜 리 칼국수가 일품이었던 신포동 골목, 용동큰우물 골목의 회빈루와 영주집... 그 아름다운 그림을, 지우고 살았다. 추억은 어느 날 느닷없이 되돌아왔다. 지하철에서 조우한 ‘굿모닝인천’. 그 잡지의 기억은 김 원장과 일치했다.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가보를 찾은 듯, 그는 잡지를 보고 또 보았다. ‘니하오 유커’에서 본 차이나타운, ‘까치밭로 본 인천’에 등장한 부평공원을 모처럼 찾아봤다. ‘세계 책의 수도’ 일정표에 따라 북콘서트에도 참가했다. 그는 말한다. ‘굿모닝인천’엔 정보의 알맹이가 빼곡하다. 한 알 한 알 빼먹는 맛이 일 품이다. ‘굿모닝인천’ 곳이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 제시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시 대변인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답게 '세계교육포럼'에는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1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세계
교육
포럼 2015

전 세계인의 교육 축제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이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태국 줌타엔,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15년 만에 열린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포럼에는 유네스코, 유엔인구기금, 유엔개

발계획, 유엔여성기구, 유엔난민기구,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 등 세계의 교육 발전을 논의하고 이끌어갈 주요 인사 1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포럼 기간 참석자들은 송도센트럴공원을 비롯한 인천의 명소를 둘러보고 인천, 서울, 경기의 우수 교육기관을 방문해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다.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을 담은 ‘인천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포럼이 제시한 새로운 교육 비전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인류에 보편적인 평화, 인권, 다양성 등을 가르치는 세계시민 교육이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로 처음 명시돼 의미를 더했다.



무의도 하나개 해변(海壁)

떨어져 있는 세상, 모든 것은 섬이 된다

낮선 땅이란 없다. 낮선 등반가만 있을 뿐. 이때 알았다. 아침 해로 눈뜨는 바다,

해무의 숲이 걷히고 청명한 파도소리가 맑게 떠오르던 순간 마주했던

그 벽의 의미를... 땅이 그리운 인천으로 향했다. 무의도를 돌아설 때 알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떨어져 있으면 섬이 된다는 걸. 배 안으로 해조음이 밀려들었다.

절벽을 뜯어먹는 파도소리가 귀에 선하다.

글 임성묵 사진 주민옥 월간 '사람과 산'

그 섬 무의도, 바다 가운데 땅

‘포도밭에 앉았던 꿩/ 인기척에 푸르르 날아간 뒤/ 소나무가 한가하다/ 바윗돌도 소나무를 닮아 간다// 썰물이면/ 징검장길 실미도로 건너가는 연인들의/ 호기심이 가까이 다가와도/ 실미도의 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하락).’

평생을 바다와 섬을 기행하며 사람의 고독과 섬의 고독을 잇는 시를 써온 이생진 시인의 ‘실미도, 꿩 우는 소리’의 일부다. 차분한 어조로 침통한 듯 내뱉은 그의 독백이 끝내 절절하다. ‘실미도의 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핵심 대목은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아픔을 기리는 레퀴엠인가. 어두운 과거를 보듬어 진실을 말하라는 속 깊은 연사인가.

1971년 8월 23일, 정부는 한국에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국군과 교전을 벌이던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자폭했다고 발표했다. 실미도 사건이다. 실은 북파 공작원이었던 이들의 진실이 세

상을 관통한 건 1999년 백동호의 소설 ‘실미도’를 2004년 강우석 감독이 동명 영화로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다. 이를 기회로 실미도로 터진 물의 관심은 천만 관객이라는 영화 흥행 만 큼이었다. 그러나 태양이 강하면 그늘도 짙어진다고 했던가. 이슈를 따라가는 발길의 아이러니인 즉슨 실미도의 본도(本島)에 해당하는 한 섬의 존재감조차도 무력해진 데 있었다. 부지불식간 이슈를 향해 터진 관심의 그늘인가.

그 섬 무의도(舞衣島), 바다 가운데 땅으로 가는 기행은 현재의 심정에 있지 않았다. 지난 시절의 아련함에 서단(緒端)을 두었다. 그것은 2009년 물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을 무엇이 더는 없어 보였던 이 섬에서 전과 다른 국면이 연출되면서부터였다. 로프를 맨 클라이머들의 출현은 해변 등반이라는 이색 시현의 전조였다. 그 중심에 선 이는 암벽등반지 발굴과 개척에 관해서라면 고산자로 칭해야 옳을 등반가 윤길수(57) 씨였다.

곶추선 해안 절벽 아래 바다

물을 뜬 배가 돌아서자마자 큰무리 선착장이다. 옆 차는 그래서 시동을 끄지 않았나? 내 나라 안 대부분의 섬이 그렇듯, 으레 해안가 풍경 속엔 진경이 하나쯤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 그리로 간다. 곶추선 해안 절벽 사이의 등로를 따라 오르자 이국으로 열린 바다는 구름에 잠겼다. 후드득! 비다. 끝없이 바다와 조우하며 살아가는 도인(島人)들의 삶이 해무에 잠긴다. 아직 물의 시간을 다 털어내지 못해서인가. 조급한 마음이 좀체 비워지지 않는다. 지는 노을을 등반의 하이라이트로 본다면 그리 서두를 일도 아니었다. 앞섰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시장기가 동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 빛깔로 일어난 호룡곡산 등산로 입구의 객잔에 들었다. 잘 볶아진 낙지의 매운맛에 한 줄 땀이 흐를 때쯤 열린 하늘이 푸르다. 개펄의 진흙물이 풀어져 흙빛으로 출렁였던 먼 바다는 덩달아 하늘빛을 닮는다.

바다가 물러간 자리에 드러난 개흙을 따라 이어진 접근로가 짧다. 만조였다면 먼 산길을 에돌아야 한다. 넓은 개펄이라 하나개라고 했던가. 고저를 크게 두지 않는 지세이고 보면 해식애를 수직 단애로 가다듬기 위해 들고난 밀물과 썰물의 시간이 억척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

하나개 암장은 선경 속에 자리했다. 어찌 된 일인지 바위보다 바다에 발을 들이고 싶은 주객이 전



도된 마음이 동한 걸 보면 성하의 계절은 해원(海原)을 향해 열렸다. 물 나간 자리에 드러난 펄을 바라보니 맨발로 어느 섬 갯가의 진흙 별판을 누볐던 유년기의 추억이 진저리 쳐질 정도로 피어나면서 파도 소리 위에 꿈처럼 떠올랐다. 하나개 암장의 등반지는 총 여섯 지역으로 뚜렷한 해안선의 굴곡을 따라 이어졌다. 모래사장에 대충 따라서 그리니 비슷하다. 이럴 정도로 이곳 지세의 들고남은 확연했다.

바다로 유지한 세상과의 간격

오후를 지나면서 서해 물빛이 더할 나위 없이 눈을 시리게 하자 하늘과 바다의 이분법적 구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잠시 한 마리 물고기가 된 나는 본질적으로 수성(水性)이며 여성인 바다로 상상 여행을 떠났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별과 바다를 그리워하고 갈구하는 건 거기서 시원했기 때문이라고. 등반가의 견지에서 바라본 해변 등반에 대한 클라이머의 갈망은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물과 바다의 경계점을 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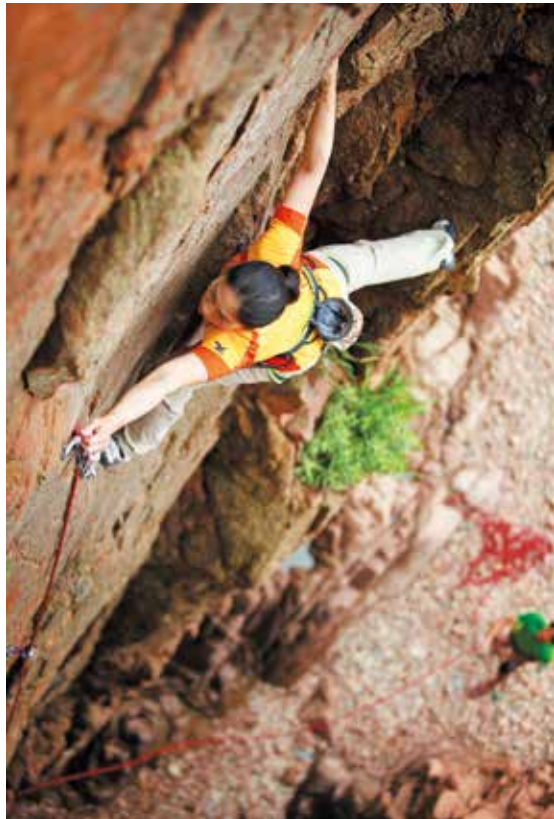
다는 이색에 있는 것일까.

“학ampo가 처음이었네요, 해변 등반지 개척에 나선 것이. 등반가에게는 누구나 새롭고 어렵게 오르고 싶다는 심성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6년 전 우연한 기회에 호룡곡산 산행을 하면서 해안 절벽을 유심히 살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해변 등반이 특별한 건 산과 대비되는 바다를 곁에 두어서일 겁니다. 일종의 일탈을 통한 해방감을 해변 등반에서 얻는 거지요.”

윤길수씨의 말대로 오전부터 피어오른 해무가 끝없이 생성하며 앞바다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그가 해가빛 벽을 향해 출발했다. 그의 등반은 정해를 깨친 스님처럼 어떠한 요동도 없이 차분했다. 오를수록 멀리 바라본다는 진언이 현실의 세계로 발을 들인다. 높이를 더할수록 수직과 수평의 심상은 더욱 뚜렷해졌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벽만 올랐다. 햇빛은 울울창창했고 바다는 말 그대로 쪽빛이다. 발밑으로는 절망 같은 수직의 고도감이 파도 소리처럼 밀려들고 바다와 맞닿은 수평선엔 고깃배가 한 편의 서정시처럼 다

섰다. 바다로 나간 갈매기들이 드는 물 따라서 지근거리에 도착할 즈음 등반이 만미(滿尾)를 맞았다. 땀을 들인 만큼 짜릿한 등반이었다. 구릿빛 얼굴에 퍼지는 미소를 보니 그렇다. 그간 수많은 암장을 발굴 개척하며 한국 자유등반사와 함께 달려온 이 베테랑 등반가의 정신은 언제나 청년인 듯했다. 외락 뛰어 들고 싶은 질푸른 여름 바다의 유혹 끝에 서 있는 우리는 늙지 않을 것 같았다.

정신 차리라는 듯 순간 들이친 파도에 놀란 발이 차다. 순식간에 물이 들었다. 이렇게 빨리 차오를 줄은 몰랐다. 오후가 되자 해를 맞이한 바다가 연붉다. 이내 온 세상이 시뻘건 색으로 도배되겠지. 떠나야 할 시간. 문득 세상과 간격을 바다로 유지하는 것 또한 삶을 영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물이 차올라 등산로를 따랐다. 물이 그리운 사람들은 인천으로, 섬이 그리운 사람들은 무의도로 교차하는 선착장은 왠지했다. 낯선 땅이란 없다. 낯선 등반가만 있을 뿐. 이때 알았다. 아침 해로 눈뜨는 바다, 해무의 숲이 걷히고 청명한 파도 소리가 맑게 떠오르던 순간 마주했던 그 벽의 의미를.... 땅이 그리운 인천으로 향했다. 무의도를 돌아설 때 알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떨어져 있으면 섬이 된다는 걸. 배 안으로 해조음이 밀려들었다. 절벽을 뜯어먹는 파도 소리가 귀에 선하다.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춤추는 섬, 무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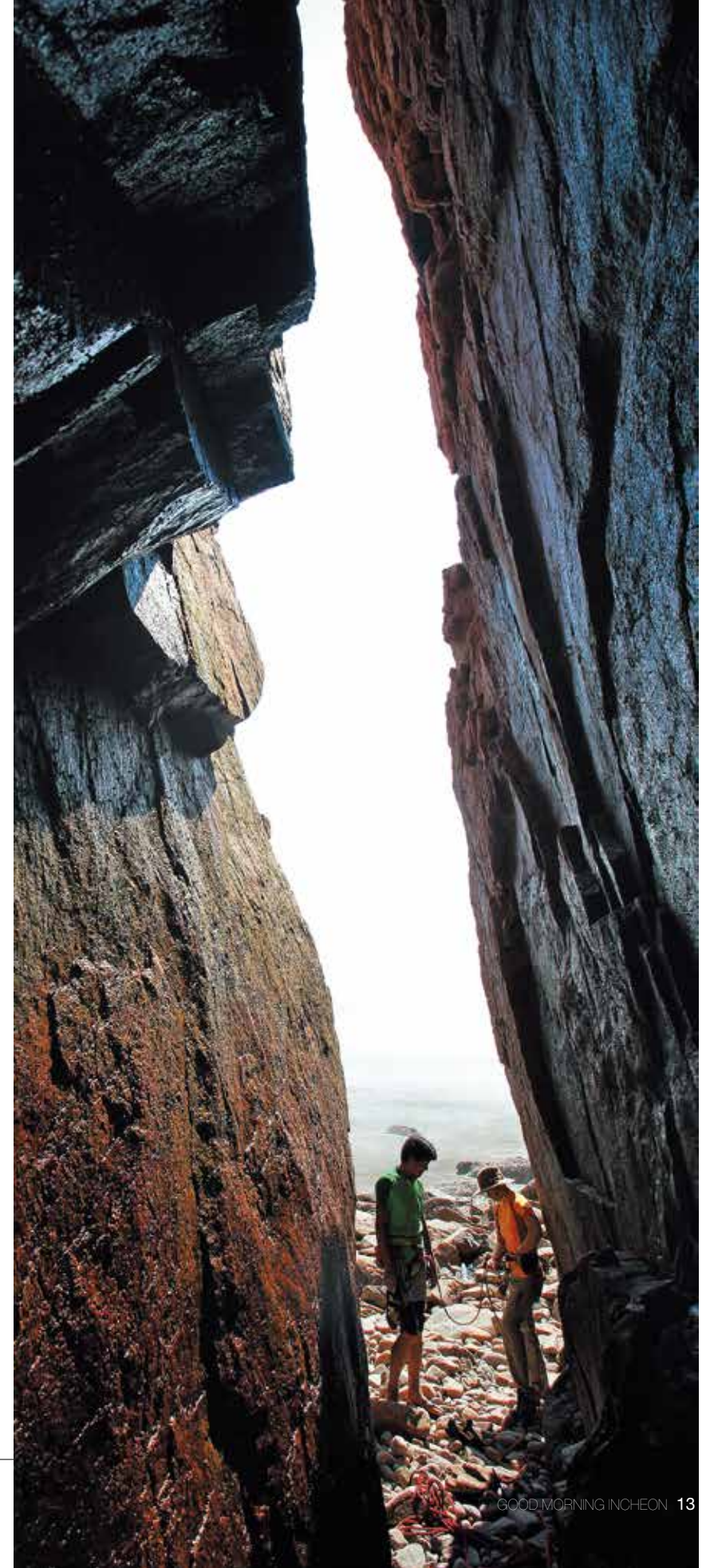
무의도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18km, 용유도에서 남쪽으로 1.5km에 있는 섬이다. 섬의 형태가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아 무의도(舞衣島)라고 하였다. 최고점은 해발고도 245.6m의 호룡곡산이다. '서해의 알프스'라는 그 산의 '환상의 길'을 따라 내려가면 아찔한 절벽에 다다른다. 파도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눈앞에선 '환상'이 펼쳐진다. 무의도에서는 하나개와 실미 해수욕장이 유명하다. 특히 실미 해수욕장은 썰물 때 바닷길이 열려 섬까지 걸을 수 있다. 하나개 해수욕장에서는 호룡곡산, 국사봉이 가까워 등산과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찾아가기 _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따라 북인천, 영종대교, 공항신도시를 지나 신불IC에서 잠진도 쪽으로 진입, 제방도로를 따라 3km 달리면 잠진도 선착장이 나온다. 선착장에서 무의도행 배를 타면 섬까지 4분 남짓 걸린다. 문의 무의도해운 751-3354~6, muuido.co.kr

무의도에 도착하면 해안도로를 따라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간다. 호룡곡산 등산로를 따라 10분 정도 운행한 후 바다 쪽으로 난 급경사 20여m를 내려서면 제1암장이다. 물이 빠졌을 때는 해수욕장 왼쪽 갯벌을 따라 5분 정도 운행하면 암장에 도착한다.

잘 데와 먹을 데 _ 무의도에는 민박과 음식점이 많다. 또 하나개 해수욕장과 실미 해수욕장에는 야영장이 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야영하기에 편리하다.

※ 월간 '사람과 산'은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산악 전문지입니다. 1989년 '휴머니즘과 알피니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역사를 시작한 이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의 등산 문화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02-2082-8833, www.mountainkorea.com



스쳐 지나지 않고 머물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한국 여행을 위한 정거장이 아닌 새로운 목적지가 되어 가고 있다. 새로움과 호기심이 바로 그 이유. 아시아 최초의 체험형 드라이빙 센터, 유럽에서도 찾아오는 디자인 호텔 등 매력적인 요소들이 여행자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하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찾는 디자인 호텔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 외딴 갈대밭 한가운데에서 ‘네스트 호텔(Nest Hotel)’을 만난 건 다소 뜻밖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이 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호텔스’ 멤버로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호텔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인 호텔들이 가입해 있는 플랫폼. 매년 400여 개 럭셔리 호텔이 도전하지만 디자인과 창의성,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혹독한 심사를 통과하는 호텔은 3%뿐이다. 그 때문에 오로지 이 호텔에 머무르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멀리 외국에서 영종도를 찾기도 한다. 최근 대륙에서 인기 높은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촬영한 후로는 중국인 유커(遊客·관광객)들의 방문도 부쩍 늘었다.

갈대가 상징하는 자연으로부터의 사색은 호텔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 자연에 오롯이 둘러싸인 이 호텔은 ‘당신만의 은신처(Your Own Hideout)’라는 슬로건처럼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 노출 콘크리트로 시공한 외관은 언뜻 건조해 보이지만 그 안은 더없이 온화한 기운을 풍긴다. 모든 객실은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창이 나 있고, 소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디자인하고 브랜딩한 섬세한 감성이 돌아난다. 로비의 높다란 천장 위에 매달린 조명, 벽에 걸린 액자 등 호텔 곳곳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준다. 그중에서도 감탄사를 내뱉게 하는 작품은 따로 있다. 바로 로비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통유리창을 통해 보는 자연이다. 자연은 거대한 프레임 안에서 봄이면 새순의 연둣빛으로 물들고 가을이면 억새가 바람에 취해 몸을 누이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낸다.





바닷가 산책 후, 카페에서 차 한잔

네스트 호텔은 누구나 한 번은 꿈꾸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잠시나마 실현시켜 준다. 디럭스 룸 이상의 객실을 비롯해 북유럽풍 레스토랑 ‘더 플라즈’, 로비 등 호텔 어디서든 창밖으로 바다가 스며들 듯 넘실거린다. 서쪽 바다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두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이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다.

바다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면,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 해변은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뻗은 모래사장 뒤로 솔솔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아늑하다. 휴가철이면 밀려드는 인파로 몸살을 앓는 바다는 이제야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바닷가 주변으로 즐비한 조개구이 집은 여전히 왁자지껄하다.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했다. 호객행위 하는 아줌마에게 이끌려 조개구이를 후후 불어 먹는 재미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여행의 묘미라 생각하면 즐겁다.

을왕리와 왕산 해수욕장 중간 즈음을 달리다 보면, 언덕

위 웅장한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카페 ‘오라(Ora)’다. 2009년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에 빛나는 이 카페는 이미 영종도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조약돌을 모티브로 최대한 단순화하여 지은 건축물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자연과 잘 어우러진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쪽은 을왕리, 한쪽은 왕산 바닷가를 향해 뻗어있는 건축 형태다. 외관에서부터 벽과 천정 내부마감까지 모두 안에서 밖으로 바다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나무로 된 바닥의 패턴까지도 바다를 향해 질주한다. 테라스로 나가거나 3층에 오르면 하늘과 맞닿은 바다를 한껏 품에 안을 수 있다.

카페의 운영 방식과 메뉴는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에 따른다’는 믿음을 기본으로 한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고객의 요구와 유행에 맞춘 변형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는 카페 매니저 임철순 씨가 자신이 몸 담았던 강남의 모더니즘 카페 ‘플라스틱’에서 고스란히 옮겨왔다. 플라스틱은 90년대 중반 강남의 카페 문화를 선도하며 도산공원 일대를 매력적으로 만든 카페 그 이상의 문화적 공간이었다.

아시아 최초 드라이빙 센터에서 질주

다음 여행지는 BMW 드라이빙 센터.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BMW가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다. 축구장 30배 크기인 24만㎡ 부지에 드라이빙 체험 트랙, 브랜드 체험 센터, 트레이닝 아카데미, 서비스 센터, 친환경 공원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서울에서 약 한 시간 거리로 가깝고 인천국제공항까지 KTX가 운행해 국내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다.

그 안에서 거침없이 달리며, 숨겨왔던 질주본능을 일깨운다. 핵심 콘텐츠는 여섯 가지 코스로 이뤄진 서킷. 그중 ‘오프로드 코스’는 숲길, 철길, 경사로, 암석, 모래, 웅덩이 등 다채로운 코스를 넘나들며 다이내믹한 경험을 선사한다. 오프로드가 심장을 쫓깃하게 한다면 ‘조이 투어’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전동 카트에 몸을 싣고 자연의 정취를 즐기며 트랙 외부를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이 안에서는 드라이빙 외에도 쉽게 경험하기 힘든 자동차 문화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브랜드 체험 센터 내 ‘드라이빙 갤러리’에서는 BMW와 MINI 등의 최신 모델들을 직접 타 보고, ‘헤리티지 갤러리’에는 시대를 거스르는 클래식카의 미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라이프 스타일 숍’에서는 여행의 기념이 될 드라이빙 센터만의 특별한 아이템들을 만날 수 있다.

하늘과 땅을 수차례 오르내리는 비행기와 저마다 사연을 안고 수 없이 오고가는 사람들. 영종도는 이 모든 것을 마중하고 배웅하며 한가슴에 품어왔다. 공항을 품은 그 섬이 지금, 여행의 출발점이자 마침표가 아닌 또 하나의 여정으로 새롭게 다가서고 있다.





- 1 자기부상열차
- 2 인천대교
- 3 소나무 숲 '봄꽃동산'
- 4 네스트 호텔 '쿤스 라운지'
- 5 을왕리 해수욕장 조개구이집
- 6 카페 '오라'

유커, 영종도의 하루

- 09:00 AM 디자인 호텔 '네스트'에서 숙박
- 10:00 AM 소나무 숲 '봄꽃동산'에서 산책
- 12:00 PM 을왕리 해수욕장 조개구이 집에서 점심
- 01:00 PM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인근 카페 '오라'에서 차 한잔
- 02:30 PM BMW 드라이빙 센터 체험
- 05:30 PM 영종도 해안도로 드라이브
- 07:00 PM 왕산 해수욕장에서 낙조 감상
- 09:00 PM 네스트 호텔 '쿤스 라운지'에서 칵테일 한잔

먹고 보고 즐겨라, 오감만족 영종도

어디론가 떠나기 위한 정거장쯤으로 여겼던 영종도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 푸른 바다 위 하늘로 끊임없이 비행기가 오고가는 풍경. 그 안에는 아시아 최초의 체험형 드라이빙 센터가 있고, 유럽에서도 찾아오는 디자인 호텔이 있다. 한국 여행의 출발점이자 마침표가 아닌 하나의 여정으로 충분한 영종도에서 먹고 보고 놀고 즐기.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할 것

인천대교 인천대교는 진저리 처질 정도로 경이롭다.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하나로 잇는 21.38km의 다리는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세계에서 다섯째로 긴 사장교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라는 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 길 따라 바다 한가운데를 달린 끝에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송도국제도시에 닿는다.

BMW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초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 드라이빙 외에도 갤러리, 라이프 스타일 숍, 키드 드라이빙 스쿨 등에서 자동차 문화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에는 쉼다. 080-269-3300, www.bmw-driving-center.co.kr

스카이 72 골프클럽 전 세계 골퍼들이 찾는 72홀 동북아 최대 규모의 골프장. 해마다 LPGA 대회를 개최하는 오션 코스를 비롯해 차별화된 네 코스 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원형 드라이빙 레인지, 특허 출원한 샷 메이킹 코스 '드림툰스'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1544-7272, www.sky72.com



볼 것

왕산 해수욕장 낙조 영종도를 여행하고 있다면, 해질 녘에는 꼭 왕산 해수욕장에 달아야 한다. 이 해변에 내리는 노을은 '용유팔경'의 하나일 정도로 유난히 붉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세상이 검기울면 태양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수면 아래로 내려앉는다. 그 빛의 여운이 햇살보다 길다.

소나무 숲 '봄꽃동산' 네스트 호텔 창밖으로는 소나무 숲 '봄꽃동산'이 푸르게 펼쳐져 있다. 바라만 봐도 좋지만, 바다를 따라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있어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여유롭게 걸어도 좋다. 숲은 봄이면 벚꽃으로 달콤하게 물들고 여름이면 소나무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울울하게 자란다.

자기부상열차 네스트 호텔 바로 옆에는 노란 열차가 하늘 높이 있는 선로를 따라 달리는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우리나라의 첫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로, 이달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통이 조금 미뤄졌다.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2005년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행하는 저속 자기부상열차가 된다.

잠시 외출, 긴 정착... “이젠, 인천이 내고향”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인천시민은 약 36만여 명에 이른다. 인천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다. 대부분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천에 왔지만, 전쟁의 비참함과 극한의 고통을 이긴 사람들답게 강인하고 철저했다. 그들은 인천에 정착한 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뛰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꽤 많다. 황해도 사람들의 정서, 문화, 경제활동은 인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고, 인천의 역사가 되었다. 잠시 머물기 위해 온 인천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다. 65년 전 피란 온 1세대는 대부분 이미 사망했거나 70, 80대의 고령이 되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박근원(화도진도서관 제공)



뱃길을 통해 인천으로 피란 온 사람들

인천에 황해도 출신 피란민이 제일 많은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다. 황해도의 남쪽인 웅진, 연백, 해주, 벽성 출신이 제일 많았다. 뱃길은 인천으로 오는 지름길이었다. 그들은 인천으로 바로 오거나 강화도, 연평도 등의 섬을 피란지로 택했다. 피란 시기도 1951년 1.4후퇴 때가 가장 많다.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들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바닷가 근처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부두를 따라 만석동, 송월동, 화수동, 수도국산 등이 피란민촌을 이루었다. 만석동과 북성동 일대에 있던 천막식 수용소에는 한 천막에 4칸 정도의 쪽방에서 4~5가족이 살았다. 이런 형태의 집 400여 채가 다닥다닥 들어서면서 ‘꼬방동네’를 형성했다. 피란민들은 인천시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남구 용현동, 학익동, 신기촌 등으로 거주 지역을 바꾸었다.

김중미의 소설 ‘깡이부리마을’에는 황해도 피란민들의 삶이 소개되어 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사람들이 고기 잡던 배를 타고 깡이부리말로 피란을 왔다. 전쟁만 끝나면 곧 돌아가려고 피란민들은 바닷가 근처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 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게 되었고, 몸만 달랑 도망쳐 온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미장이나 목수가 되어 부둣가에서 품을 팔았다. 여자들은 아기를 둘러업고 영종도나 덕적도에 가서 굴을 캐고 동충과 바지락도 캐다가 머리에 이고 팔러 다녔다.’

부두 노동자, 노점상으로 생계 이어

맨몸으로 내려온 그들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기술 없고 밑천 없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원조물자를 실은 미국 화물선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하역노동자로 날품팔며 살았다. 만석동 만석교회 김홍인 장로(78)는 “피란민 하역노동자들이 배에서 물건을 내리면서 곡식, 쌀, 면화 등의 생필품을 몸속에 숨겨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한다. 다들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일어난 슬픈 일화다. 또 그때는 전깃불이 완전히 보급된 상태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집들은 호롱불을 켜다. 석유는 미군부대에서 가져다 썼는데 석유에 휘발유가 섞여 있어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천막촌에 화재가 자주 났다고 전한다. 김 장로의 집에서도 여동생이 호롱불을 키다가 불이 옮겨 붙으면서 몸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1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해병대와 함께 인천 시가전에 나선 국군해병대 2 몸동 이 하나밖에 없었던 피란민들은 부두 노동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3 만석동 피란민 아이들의 철길 놀이기(1960)

피란민들은 80년대 만석동의 판유리공장이 없어지고 주안염전에 주안5공단이 들어서자, 일터를 쫓아 그들의 원래 정착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시장은 피란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었다. 돈벌이가 급했기에 거적을 깔고 나무상자 하나 놓고 노점을 열었다. 과일, 미군 담요, 잠바, 생필품, 미군PX 물건을 팔았다. 특히 용현시장, 송월시장, 배다리 중앙시장은 황해도 피란민이 많았던 곳이다. 중앙시장은 60~8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 상인의 절반 가량이 황해도 출신이었고, 주요 상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미군들이 입던 군복바지, 담요, 양말, 텐트 등을 깨끗이 빨고 꺾매서 팔거나, 미군PX 물건인 초콜릿, 미제 통조림, 과자, 화장품 등을 시장에 내놓았다. 황해도 사람들은 주로 피복, 양복점, 깡통 장사를 많이 했다. 밑천없이 할 수 있었던 장사들이다. 중앙시장 내 한복상가는 미군부대에서 나온 군용잠바, 바지, 담요 등을 수선해 팔기 시작한 데서 원조를 찾을 수 있다. 수선으로 시작해 기술이 늘자 옷을 만들었고, 한복으로 이어졌다.



1 한복가게들이 모여있는 중앙시장 2 황해도 피란민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북한 용매도 교회에서 가져온 만석교회 종

군용 담요, 옷 수선이 한복으로 이어져

2007년 '인천시 황해도민의 정착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로 한국고원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쓴 김정숙 씨 조사에 의하면 '신포시장을 기점으로 한복을 짓거나 중앙시장에서 노점에 재봉틀을 가져다 놓고 미군부대 등에서 나오는 군복을 수선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중앙시장과 양키시장을 따라 줄지어 있는 한복상가의 시작'이라고 적고 있다.

인천제2교회 최승덕 장로(78)는 “백령도, 연평도 등 섬사람들도 중앙시장에서 생활용품을 다 사 갔다”고 말한다. 60~80년대 중앙시장은 전성기였다. 사람들끼리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문전성시였고 황해도 출신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생겨났다. 경제력을 확보한 이들은 시장 상가를 소유하거나 주변의 건물을 매입했고, 서울로 떠난 사람도 꽤 된다. 인천에 상업이 미비하던 시절, 황해도 출신 피란민들의 활약이 컸던 셈이다. 정부는 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 피란민들을 위해 가호적을 만들어 주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가호적에 나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땅문서나 집문서를 가져오면 돈으로 용통해주곤 했다고 피란민들은 전한다.

먹을 게 귀했던 피란민들에게 꿀꿀이죽은 귀한 식량이었다. 창영초등학교 주변에 꿀꿀이죽을 파는 가게들이 형성돼 있었다. 미군들이 버린 음식을 가져다 끓인 재활용 음식도 배고픈 시절에는 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전파 지역인 황해도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다. 피란민들 중에도 교인이 많아 인천에는 황해도 출신들이 세운 교회가 여럿 있다. 송현동 중앙장로교회, 인천중부교회, 용현교회, 만석교회가 대표적이다. 만석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는 '종'은 황해도 피란민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용매도에서 가져왔다. 원래 '종'은 깨졌고 똑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황해도 출신들은 전쟁이라는 엄혹한 상황을 피해 인천으로 잠시 피란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도 잠시의 외출이 긴 정착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 정착은 제2의 고향으로 이어졌다. 인천에 황해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인천시의 지역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고 황해도 피란민들의 이야기가 결국 인천 역사의 한 부분이 됐다. 인천의 한 축을 형성한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인천이 되어, 인천의 오늘을 말하고 있다.



중앙시장 '덕수들' 이야기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interview

양키시장에서 수입물건 팔며 삶을 이어가다

홍성녀 할머니 1932년생, 황해도 연백

양키시장의 좁다란 골목을 미로처럼 돌아보면 수입과자, 화장품, 통조림 등을 파는 '은정아네'가 나온다. 1평 남짓한 공간은 물건을 쌓아놓은 공간을 제외하면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다. 홍성녀 할머니(83)는 40년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이다. 6.25 전쟁이 나자 처녀들을 청년단원으로 만들려는 인민군들을 피해 밤중에 몰래 바닷길을 통해 아버지, 외삼촌과 피란을 나왔다. 처음엔 황해도 연백과 가까운 용매도에서 몇 달을 지냈다. 당시 할머니의 나이가 꽃다운 18세였고,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교장을 지낸 지식인이었다. 전쟁이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어머니, 동생들은 피란을 같이 나오지 않았다. 용매도로 피란 온 후 삼촌과 고향에 몰래 들어간 적도 있었다. 그는 그때 어머니를 만났다면 그냥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용매도에서 머구리배를 타고 다시 여수로 갔고, 다음 해에 트럭을 타고 인천으로 올라 온 후 피란민이 많았던 만석동에 정착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는 원조물자를 분배하는 반장 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남편과는 친척의 중매로 만났다. 고향은 개성이었다. 얌전하고 온순한, 샌님 같은 양반이었다. 신혼은 송림동 남편의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남편은 25년 전인 1990년에 암으로 숨졌다. 어려운 시절 빈속에 먹은 독한 약들 때문에 위가 헐었고 그것이 암이 되었다.

할머니가 양키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을 둘째를 낳은 후였



다.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친척의 소개로 노점에서 시작해 돈을 모아 가게를 얻었다. 당시 돈 100만의 거금을 투자했다. 형편이 어려워 1층에서 장사를 하고 2층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할머니는 1남 4녀를 두었다. 처음 시작할 때 두 곳이었던 수입물건 파는 가게는 장사가 잘 되면서 3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젊을 때는 PX 물건을 대주는 아줌마들이 오면 물건을 싸게 많이 확보하려고 아줌마들끼리 옥신각신도 많이 했다.

형편이 좋아진 뒤로는 송현동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동네는 물이 하루 건너 나왔다. 컹먹이부터 큰 애까지 아이가 많아 항상 일이 산더미였다. 막내 기저귀를 빨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기저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섬 없이 일해야 하는 고달픈 삶이었다.

가게 이름 '은정아네'는 막내딸의 이름이다. 83세의 할머니는 논현동에서 동인천까지 매일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한다. 첫째, 셋째 일요일만 쉬며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퇴근한다. 장사하며 자식 잘 키운게 큰 자랑거리다. 아직은 건강에 큰 무리가 없어 곳곳하게 가게를 지키고 있다.



interview

‘신성일’ 닮았던 청년, 양복장으로 미상을 돌리다**조병헌 할아버지** 1924년생, 황해도 연백

미림극장에서 (구)지하상가(굴다리)로 가는 길 옆 상가 1층에는 양복점이 여럿 눈에 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양복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상점의 모습만으로도 오랜 연조를 느끼게 한다. 한때는 양복 입은 멋쟁이들이 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을 것이다. 이 양복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얼굴로 동네사람들의 옷을 수선하고 짜깁기하고 있는 평화양복점. 이 작은 양복점이 6.25 전쟁으로 황해도 연백을 떠나 인천에 정착한 조병헌(91) 할아버지의 일터다.

할아버지는 1950년 6.25전쟁 때 피란을 나와 강화 교동도에 살았다. 고향의 가족들이 보고 싶어 고향에 돌아갔다가 1951년 1.4후퇴 때 다시 남쪽으로 왔다. 고향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옷 수선 기술을 배웠다. 벽란도에서 개성을 거쳐 서울로 내

려온 뒤 경남 구포에서 국군 제2국민병으로 끌려 나가 전쟁에 참여했다. 국민병이 해제되면서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보릿겨, 수수겨죽을 끓여먹으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인천으로 올라왔다. 고향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한동안 교동에 살았다. 교동도에서는 고향이 보였다. 그곳에에서는 HDD(방첩대) 문관으로 일했고 통일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서 인천으로 왔다.

결혼은 중매로 양인순 할머니(83)와 신포동 인천예식장에서식을 올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혼살림을 차린 곳은 송림동이었다. 달콤한 신혼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됐다. 인천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당시 신포동에서 유명했던 문화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 양복 기술을 배웠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중앙시장에서 양복점을 차렸다. 큰딸 낳고 시작한 양복점은 처음 반 칸짜리에서 시작했다. 주로 결혼식 예복을 도맡아 했고 단골손님도 많았다. 가게가 잘 되면서 조금씩 늘린 것이 지금의 평화양복점이다. 평화양복점 자리는 당시 동인천으로 가는 주도로에 있었기에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1층에서는 양복점을 하고 2층은 살림집으로 썼다.

할아버지는 인천에 살기 위해 가호적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군대에 안 가려고 가호적을 만들 때 나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젊은 시절 영화배우 신성일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목구비가 굵직한 잘 생긴 청년이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해온 양복 일로 미상을 돌리고 재단을 하느라 등이 굽었다. 눈은 돋보기를 써도 실을 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다. 할아버지는 최근 지하철 문에 발이 끼어 발목뼈가 부러졌다. 발목에 깁스를 하고 미상을 돌린다.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동네주민들이 맡긴 바지나 양복수선, 짜깁기 일을 놓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에게 고향은 항상 그림고 애뜻하다. 꿈에서조차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이다.



interview

10살 때 피란, 배고프고 죽도록 걸었던 기억**김문수 할아버지** 1941년생, 황해도 연백

양키시장은 적막하다. 오가는 사람도 없이 그저 상인들만 가게를 지키며 하루를 보낸다. 양키시장 내 ‘부흥사’는 잠바, 바지, 티셔츠, 청바지를 판다. 세월을 대변하듯 가게 간판에도 고단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다. 부흥사를 운영하는 김문수 할아버지(75)의 고향도 황해도 연백이다. 51년 1.4후퇴 때 인천으로 피란 나올 당시 그의 나이는 열 살이었다. 어머니는 황해도 고향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육형제가 내려왔다. 1차 피란지였던 용매도는 황해도 연백 해변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걸어서 건넜다. 용매도에서 잠시 살다 배를 타고 인천 만석동으로 와서 임시수용소에서 지냈다. 지금 만석부두 파출소 근처에 있던 5층짜리 임시수용소였다.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임시로 지내다 송현동 26번지로 나왔다. 지금 송현아파트 부근으로, 옛날엔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송현동은 피란민이 아주 많은 동네였다.

김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대성목재, 동양방직 등에 들어가 일하기도 하고 부두노동과 장사를 하며 살림을 보냈다. 그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였기에 보합고등공민학교를 다녔다. 이곳은 초중등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였다.

학교 졸업 후 해병대를 다녀왔고, 형과 같이 살다 69년 중매로 결혼했다. 당시 형은 자유공원에서 평화촌이라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피란 나오면서 배고프고 다리가 아팠던 기억만은 또렷하다. 아버지가 내려올 때 땅과 집문서와 미상을 가지고 왔던 기억도 떠오른다. 미상은 당시로선 귀한 물건이었다. 자유당 시절 아버지는 집문서와 땅문서를 맡기고 돈을 융통해서 썼다. 형님이 중앙시장에서 미군의 모포, 옷, 속옷 등을 팔면서 장사와 인연을 맺었다. 형님의 소개로 69년부터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자그마치 46년이 됐다.

김 할아버지가 인천에 정착한 이유는 통일이 되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서였다. 인천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69년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무로 된 빈지로 문을 열고 닫았다. 세월이 흘러 같이 피란 나온 형들은 다 돌아가셨고 넷째 형님만 생존해 있다.

중앙시장은 그의 평생 보금자리다. 이곳에서 일해 집도 사고 아이들을 키웠다. 요즘은 손님이 거의 없어 새로운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예전에 떼다놓은 물건을 팔 뿐이다. 그의 마지막 소망은 시장이 재개발되는 것이다.



interview

산업역군에서 옷 가게 주인으로

이춘화 할머니 1935년생, 황해도 연백

양키시장 '은영사'는 부흥사와 이웃하고 있다. 은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화 할머니(81)도 황해도 연백에서 1951년 1.4후퇴 때 남쪽으로 왔다. 아버지, 엄마, 동생 두 명이 피란을 나왔고, 오빠 둘은 학도병으로 갔다. 고향에서는 농사를 지었다. 연백 고미포에서 배를 타고 인천 팽이부리로 바로 왔다. 그때는 단속이 심하지 않아 마을사람들과 배를 구해 바로 인천으로 왔다. 만석동에 도착한 후에는 민가에 잠시 있다가 화수동 쌍우물 쪽으로 거처를 옮겼다. 1.4후퇴 후 아군이 계속 밀리자 다시 피란길에 올라 안산으로 내려갔다. 당시 안산은 생지옥이었다. 연일 포탄과 폭격이 이어졌고,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안산에서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힘들자 가족들은 감춰두었던 돈과 쌀을 가지러 북한으로 들어갔다. 다시 본 고향은 피란 전의 상황과 완전히 달랐다. 감시가 심해 몸만 빠져 나오기도 힘들었다. 그는 숨어 있다가 밀선을 타고 간신히 강화도 불은면으로 피란을 나왔고, 그해 가을이 돼서야 아버지와 동생들과 재회했다. 통일이 되면 금방 고향에 돌

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강화도에서는 1년여 살다가 휴전이 되면서 인천으로 왔다. 인천에서는 화수동에서 살았다. 이 할머니는 그 후 산업역군이 됐다. 강화도에서 비단 짜는 직조공장에 다녔고, 대구에서도 비단공장에서 비단(유평)을 짰다. 서울 청량리에서는 나일론공장에서 당시 우리나라에 막 들어 온 나일론 원단을 짜는 일을 했다. 군인이었던 남편의 고향은 황해도 웅진군이었다. 군인 남편을 따라 강원도로 갔고, 다시 7년간을 춘천에서 살았다. 남편이 제대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1965년 중앙시장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다.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낮밤, 휴일도 없이 일해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다. 남편은 30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살며 1평 정도 되는 가게를 온종일 지키며 손님을 맞는다. 인적이 드물다 보니 사람이 그림고 반갑다. 젊은 시절 우리 경제발전의 현장에 있었던 산업역군이었던 할머니도 세월은 비껴가지 못해 몸이 자꾸 아프다. 하지만 몸과 달리 마음은 피란 나올 때 '젊은 마음' 그대로다.

interview

어려운 집안 장남으로 시장에서 잔뼈 굵어

김명구 할아버지 1946년생, 황해도 연백

중앙시장에서 양말, 내의, 속옷 등을 판매하는 '단골상회' 김명구(70) 할아버지는 중앙시장의 산 증인이다. 18세부터 그는 중앙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는 고향 황해도 연백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2명 등 총 다섯 식구와 피란을 나왔다. 다섯 살의 귀여운 꼬마는 어른들 틈에 끼여 씬 없이 걸었다. 6.25 전쟁이 나자마자 연백의 염전 독을 따라 걸어나와 소금을 실어 나르던 머구리배를 타고 덕적도로 갔다. 덕적도에서 2년간 살다 인천으로 왔다.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은 2차로 피란을 나왔고, 삼촌은 월미도에서 바로 군대에 자원한 뒤 전쟁 중 사망했다. 피란 나올 때 가져온 것은 이부자리, 쌀 몇 부대 정도가 전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천으로 피란 와서는 송월동 외할머니집에서 다섯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살았다. 송월동에서 살다 인하대 운동

장에 피란민촌이 만들어지면서 용현동으로 이사를 갔다. 피란민촌은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중앙시장 노점에서 사과박스를 놓고 과일 장사를 시작했으나 실통치 않았다. 이후 아버지는 용현동에 있던 미군 유류부대 경비로 일했다. 용현동 피란민촌에서는 방 한 칸에 아홉 식구가 살았다. 부모님이 인천에서 동생 넷을 더 낳았다. 작은 방 아랫목에 아버지, 어머니, 막내, 그리고 어린 동생 순으로 누웠고 윗목은 장남인 그의 자리였다. 아버지가 유류부대 경비로 일할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럭저럭 생활은 됐다. 5.16 이후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은 부대에서 일 할 수 없다는 지침이 생기면서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는 당장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메리야스 가게의 점원이 됐다. 18세부터 장남으로 가족의 생활고를 함께 짊어져야 했다. 점원 생활은 10년간 이어졌다. 월급 없이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배웠다. 10년간 일한 퇴직금 2백만 원으로 시계 하나 사고 노점을 열었다. 노점에서 돈을 모아 가게를 열고 본격적인 메리야스 장사에 뛰어들었다. 젊을 적에는 타월, 메리야스 도매업을 주로 해서 자동차 6대로 부친, 부평, 인천 일대에 물건을 납품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 결혼은 28세에 했다. 신혼집은 그의 가게였다. 1층에서 장사하고 2층에서 살림을 했다. 메리야스 장사로만 53년째 중앙시장을 지키고 있다. 형이 시작한 일을 동생들도 함께했다. 셋째와 막내 동생도 타월과 메리야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중앙시장의 산증인이다. 시장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변천사를 몸으로 겪었고, 현재도 시장을 지키며 예전의 영화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버스’ 타고 아라뱃길 첨봉

육지를 달리던 버스가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물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육중한 몸체가 하얀 물꽃을 일으키며 물속으로 돌진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차가 아니었던가, 아찔한 순간을 지나 거침없이 물길을 달리다 보면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하다. 상상 속에서 그리던 꿈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육지와 바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륙양용 버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경인 아라뱃길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수륙양용 버스, 우리나라에서 첫 시동

이따금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고 물 위를 달리는 상상을 하곤 했다. 훗날 외국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수륙양용 자동차가 실제로 달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랍고도 부러웠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육지와 물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륙양용 버스가 첫 시동을 걸었다.

수륙양용 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한 지난달 15일, 경인 아라뱃길 아라인천여객터미널. 무엇이든 처음 경험하는 것은 가슴을 설레고 들뜨게 한다. 상상을 현실로 맞이하는 순간, 승객 모두 기대에 찬 모습이 역력하다. 운행 첫날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운행하는 수륙양용 버스를 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미 괌, 싱가포르, 보스턴 등 외국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덕 투어 버스’라는 이름의 수륙양용 버스가 도시 곳곳을 누빈 지 오래다. 그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다. 전쟁 중에 군수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물과 땅 어디든 강한 수륙양용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다. 아픈 역사에서 시작하였지만, 수륙양용 차는 지금 낭만과 즐거움을 싣고 세상 곳곳을 달린다.

안전 책임지는, 세 개의 ‘강심장’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수륙양용 버스는 폭 2.5m, 길이 12.5m, 높이 3.7m 크기로 보통 버스보다 크다. 이 거대한 이동수단 앞에 서면 ‘차라고 해야 할지, 배라고 불러야 할지’ 잠시 즐거운 고민에 빠진다. 먼저, 운전사와 항해사가 나란히 운전대를 잡

고 있는 모습이 일반 버스와는 확연히 다르다. 버스가 육지에서 물 위로 행선을 바꾸는 순간, 항해사가 운전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운전대를 잡고 멈추어 있던 프로펠러를 힘차게 돌린다.

그렇다면 물 위에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는 없을까? 물론 안전하다. 수륙양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아쿠아관광코리아(주)의 이광배 사장은 “처음 수륙양용 버스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기울어진 배가 평형을 유지하는 복원성을 비롯해 안전에 따른 여러 까다롭고 혹독한 검증 과정을 완벽하게 거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수륙양용 버스의 안전성을 확신했다.

버스에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의 역할을 하는 엔진이 세 개나 장착되어 있다. 육지를 달릴 때는 버스 앞에 장착된 260마력의 엔진이 작동하고, 해상에서는 엔진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만일에 대비해 엔진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 안전장비도 잘 갖춰져 있다. 버스 곳곳에 비상시 유리를 깨는 망치가 있고, 좌석마다 구명조끼와 구명튜브를 비치하고 있으며, 천장에는 12인용 구명보트 세 척을 갖추고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육지를 질주하다, 바다로 침범

차에 올라탄 후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한다. “자~ 출발합니다~.” 두근두근 드디어 신나는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버스는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에서 출발해 검안역까지 육로로 왕복 운행한 뒤, 다시 여객터미널로 돌아와 아라뱃길 수로를 15분 동안 달린다.

아쿠아 버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 뱃길인 경인 아라뱃길 명소를 둘러보며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듣는 투어 버스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아라전망대, 항상공원, 아라마루, 아라폭포 등 아라뱃길의 빛나는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다.

하이라이트는 아라뱃길로 입수하는 순간이다. “하나, 둘, 셋, 입수!” 항만청의 입수 승인이 떨어지자, 버스가 하얀 물꽃을 일으키며 물속으로 그대로 달려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바다에 뜨는가 싶더니 이내 물살을 가로지르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순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탄성. 밖에서 차의 운행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육지와 물길을 동시에 달리는 수륙양용 버스가 첫 시동을 걸었다. 버스는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나아가 한강, 부산 등으로 노선을 확대해 운행할 예정이다.

Info.

코스 육로(아라인천여객터미널 → 국립생물자원관 → 시천나루 → 매화동산 → 아라마루 → 아라폭포), 수로(경인 아라뱃길 15분간 운행)
소요 시간 한 시간 정도
운행 시간 ‘오키 호’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더키 호’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30분 간격으로, 하루 12회 운행)
요금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 5천원, 어린이(12세 이하) 2만원, 단체 10명 이상 10% 할인
예약 문의 아쿠아관광코리아 www.aquabus.co.kr, 1670-3355

오래된 골목의 보물창고지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복작복작한 송림동 현대시장 한복판에 책을 그득 실은 수레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선뜻 다가서지 못하던 시장 상인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느덧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상업학교에 진학했던 정육점 아주머니는 명화집을 빌려 보았고, 학창시절 역사를 좋아했던 칼국수집 사장님은 역사 소설과 평론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2012년부터 1년간 진행한 ‘책, 시장으로 가다’ 프로젝트로, 시장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이 작지만 아름다운 움직임은 ‘상상작은도서관’ 대표 정춘진(46) 씨의 머릿속에서 시작됐다.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동구 송림동 자택 건물에 상상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을 좋아하고 또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다.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다. 그는 가장으로서 착한 임대료를 받으며 가족과 오붓이 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작은 건물을 매입했다. 대출 이자를 대신해줄 월세 30여만 원을 위해 리모델링공사까지 마쳤지만, 원래 미용실이 있던 자리는 생각처럼 임대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을 빈 공간으로 있다, 창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책 2천여 권을 꺼내 묶은 먼지를 털고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서대여점이라도 연 건가, 기웃거리며 궁금해 하는 동네주민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집은 동네 도서관이 되었다.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고르는 법을 알려 주고, 빌려 가는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골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책을 추천해 주는 건, 공공도서관이 아닌 작은 도서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말한다. 또 책도 책이지만, 도서관 안에서 이웃들 간에 서로 살아 온 삶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뜻으로 도서관 운영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한다. 정 대표가 출근하는 낮 시간에는 동네 청년들이 편한 시간에 도서관을 열고, 문이 닫혀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메모에 써 붙여 놓곤 한다.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회원가입도 회비도 없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정겨운 동네 도서관이지만, 책장에는 귀한 인문학 서적이 빼곡히 차있다. 작지만 특화된 인문학도서관으로 손색이 없다.

“독서를 하는 건 다양한 편견을 접하며 편견의 각을 무디게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이웃들에게 이러한 인문학의 매력을 이야기하며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그가 품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듯, 도서관에는 오래된 희귀본을 비롯해 지금은 구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그득하다. 송림동 사람들은 그 보물창고에서 내 이웃의 지문이 스민 책을 꺼내, 소소한 즐거움을 얻고 때론 조용한 위안을 건네받으며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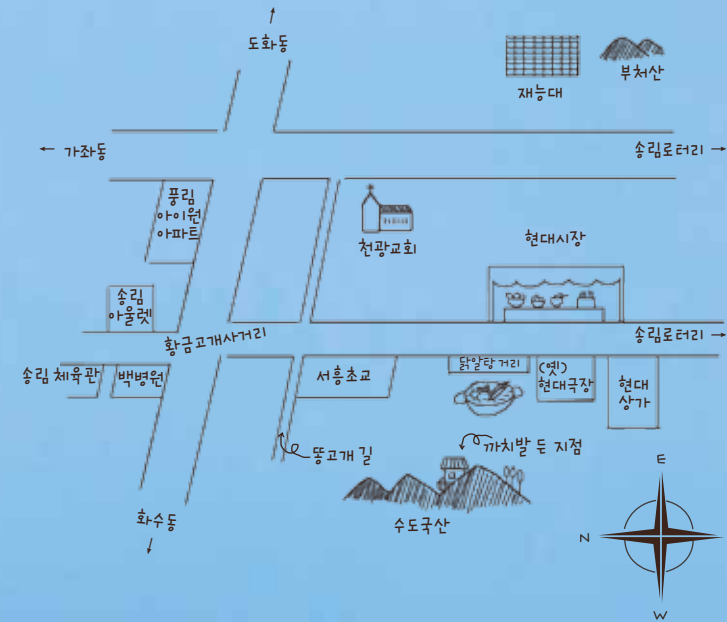


비탈길처럼 비탈졌던 그들의 삶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수도국산 기슭에서 송림동을 바라보았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수용소촌 ② 뚝고개 ③ 현대극장 ④ 현대상가와 현대시장 ⑤ 닭알탕집 거리 ⑥ 부처산 ⑦ 무선학교



까치발을 든 지점 | 수도국산 기슭 주택 건물 (동구 송현공원로 14-34)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을 품고 있는 수도국산 주변은 1998년 재개발로 3천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이곳은 우리에게 남겨졌던 시절의 모습과 흔적이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달 까치발을 든 지점은 산 밑의 주택 건물 옥상이다. 개발 즈음 소방도로가 뚫릴 때 강영자 할머니(87)는 낡은 집을 허물고 3층짜리 집을 지었다. 당시 이 동네에서 제일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가파른 언덕에 들어섰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2층, 앞에서 보면 3층 건물이다. 산 위에 건물이 서 있는 덕에 웬만한 아파트 20층을 넘는 높이로 거칠 것 없는 시야다.



원래 이름은 송림산 혹은 만수산이었다. 산은 1910년 노량진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를 산꼭대기에 만들면서 수도국산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일제의 수탈로 도심지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산등성이에 움집을 뒀다. 6.25전쟁 통엔 고향을 등진 피란민들이 산을 둘러싸고 솥단지를 걸었다. 그렇게 이 산은 빈민(貧民)과 난민(亂民)을 품었다. 사람들은 수도국산 앞 부처산에도 빈궁한 거처를 마련해 고달픈 삶을 이어갔다. 달동네 사람들은 매일 비탈진 고갯길을 내려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염전과 공장에 기대어 밥벌이를 하며 살아왔다. 그들의 삶은 비탈길처럼 비탈졌다.

① **피란민 수용소촌** : 수도국산과 이어진 작은 산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산을 그냥 '돌산'이라고 불렀다. 한때 채석장으로 사용될 만큼 단단한 암석으로 된 산이었다. 이 산 아래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원래 이곳은 피란민 수용소촌이었다. 6.25전쟁 때 황해도 등 이북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 합판, 천막 등을 주워서 집을 짓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난민촌을 형성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내려와 '3.8 따라지'라는 천대 속에서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특유의 근면성과 강한 의지로 낯설고 물 선 남한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해 나갔다.

② **뚝고개** : 이 산의 비탈길은 흔히 뚝고개라고 불렀다. 지금의 서흥초교 위쪽으로는 1960년대 말까지 온통 비탈진 배추밭이었다. 농부들은 배추 수확을 하고 난 자리에 웅덩이를 파서 인분을 퍼 날랐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게 얼어붙어서 땅과 구분이 가질 않는 웅덩이로 변했다. 이웃 동네에서 온 아이들은 비탈길을 가로지르다 웅덩이에 빠지는 난감한 '사고'를 심심치 않게 당했다. 1977년 뚝고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송림6동 현 송림체육관 자리에 송림위생처리장이 설립되었다. 인천 각지에서 수거된 분뇨가 이 '뚝공장'에서 처리되는 등 이 동네는 인분과 관련이 많았다. 그런 연유로 백병원 앞 사거리의 명칭은 인분을 미화한 '황금고개사거리'라고 명명되었다.

③ **현대극장** : 1960년대 초 500평 규모의 2층짜리로 개관했다. 시내도 아닌 변두리에 극장이 들어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다. 시내 영화관에서 몇 달 전에 내린 영화 두 편을 동시 상영했다. 현대극장은 지역의 랜드마크였다. 이 일대는 송림동이란 명칭보다 현대극장 동네로 통했다. 현대극장은 1998년 2월에 문을 닫았다. 한동안 비어 있다가 현재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더 이상 은막에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현대극장은 이 동네의 중심이다.

④ **현대상가와 현대시장** : 현대극장 바로 옆에 1971년 아래층은 가게, 위층은 살림집인 일종의 주상복합 건물인 '현대상가'가 들어섰다. 이 터는 인근에서 키운 배추 등으로 채소 경매를 하며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던 곳이다. 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노점상들을 길 건너 시장 깡마당 빈터로 강제 이주시켰다. 쫓겨난 노



1 피란민 수용소촌 2 현대상가 3 무선고(오른쪽 맨 위) 4 현대극장 5 황금고개사거리
6 서흥초 앞길 확장 공사(1960년대 초 박근원 사진) 7 닭알탕 거리 8 뚝고개

점상들은 결속을 다지며 상권을 형성해 동부시장을 설립한다. 이후 원예협동조합공판장, 동구상가, 공현상가, 송육상가, 중앙상가 등을 '현대시장'의 이름으로 한데 아우르며 한때 인천 최대의 시장으로 발전한다. 반대로 현대상가는 몇몇 포목점이 장사를 했을 뿐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점차 빈민가처럼 되었다.

⑤ **닭알탕집 거리** : 현대시장 길 건너 알록달록한 간판을 단 '닭알탕' 전문 주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닭알은 작은 암탉의 배 속에서 깨낸, 달걀이 못된 알이다. 50년 전 맞은편 현대시장 닭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닭알을 포장마차에서 얼큰하게 찜개로 끓여 내놓으면 신메뉴가 되었다. 현대제철과 인근 철광소에 다니던 노무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닭알탕' 전문 주점들이 생기면서 아예 닭알탕 거리가 되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 소개되면서 전국적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⑥ **부처산** : 일제강점기 때 돌부처 88개가 파리를 들고 있던 일본절이 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산등성이 부처 형상이라 하여 '부처산' 혹은 '부채산'이라고 불렀다. 광복 후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특히 좌익이 많이 거주해 6.25 전쟁 때 미군으로부터 집중 공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전쟁 후 피란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1990년 9월 11일 (옛)박문여고와 선인중학교 사이 부처산 측대가 무너지면서 수백 톤의 흙더미가 가옥 12채를 덮쳐 2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⑦ **무선(無線)학교** : 1955년 부처산 꼭대기에 설립한 학교로 모리스 부호와 진공관 라디오 기술을 가르쳤다. 당시 모리스 신호 등 무선 기술이 각광받던 시절로 졸업생들은 체신부 등에 취업했다. 1965년 미군의 시멘트와 철근의 원조를 받아 교사를 짓는 등 학교를 확장했다. 부처산을 중심으로 앞쪽 아래 박문여자중고등학교, 우측에 성광고등학교(선인재단 전신), 좌측에 무선학교가 있었다. 대현공고, 대한전자공업전문학교 등을 거쳐 현재의 재능대가 된다.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4 발칙한 로맨스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3만원 ☎1544-3901	3~6 청소년 극장 나들이 시리즈 I 오페레타 '부니부니 음악 탐험대'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580-1135	4 힐링음악회와 함께하는 2015년 자활한마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437-4051	5 인천예고 제18회 무용과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433-3176	황금.토.끼 택견꾼 '아리랑에 꿈을 맡기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리처드 용재오닐 '겨울 나그네'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6만원, S석 4만원 ☎1577-5266	6 발칙한 로맨스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전석 3만원 ☎1544-3901	7 발칙한 로맨스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전석 3만원 ☎1544-3901
9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한·미 합동 호국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010-8742-8425	10 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13 2015 막심 므라비치(MAKSIM MRVICA) 솔로 클래식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1566-6551	발칙한 로맨스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전석 3만원 ☎1544-3901	14 2015 정동하 전국투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070-4069-8337	발칙한 로맨스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전석 3만원 ☎1544-3901	18 6월 '브런치 콘서트' 신비로운 한국의 소리 [김효영 생황 트리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브런치 타임, 오전 11시 공연 1만원 ☎580-1135	자전거 탄 풍경의 더 클래식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899-1516~7
19 뮤지컬 '동사개 복동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오후 1시 전석 1만5천원, 단체 6천원 ☎010-2898-0014	황금.토.끼 바람을 노래하는 '여행스케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20 블록버스터 뮤지컬 '헬로 카봇'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1566-6551	미추홀클라리넷앙상블 4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010-5497-0061	황금.토.끼 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판타지아 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742	밀레니엄오케스트라 '해피콘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인천시티발레단 창작 공연 마리우스 삐띠빠와 함께 '해설이 있는 발레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2만원 ☎580-1135	애니메이션 '터키'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21 블록버스터 뮤지컬 '헬로 카봇'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1566-6551	23~27 청소년 극장 나들이 시리즈 II 익스트림 퍼포먼스 '플라잉'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580-1135	24 밤마실 극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35-7172	오리지널 행복자의 '넌 특별하단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마티네 콘서트 '마실' 남동소래아트홀 소공연장(스튜디오제비) 무료 ☎1577-5266	퓨전 타악 '잼스틱' 연수구 부수지근린공원 오후 7시 30분 무료 ☎821-6229	25 6.25전쟁 제65주년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초대 ☎440-2973	스테이지 149-어린이명작무대 I '우리는 친구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2만원 ☎1588-2341



음악으로 만나는 괴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1만5천원
☎500-2000

27

그라시아스합창단 콘서트 '스바보드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070-4618-6012

26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사랑태교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초대
☎420-2781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 '춤의 향연I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742

스테이지 149-어린이명작무대 I
'우리는 친구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전석 2만원
☎1588-2341

28

제10회 인천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763-0661

황금.토.끼

팝스오케스트라 타악앙상블의 'FUN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30

인천기독교남성합창단 창단30주년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070-8274-3424

김진경 개인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6월 3~16일



목화 / 캔버스에 혼합재료 / 38 x 46

이 달의
展

~ 6월 4일	이수옥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6월 4일	제15회 수형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6월 4일	제9회 근정 서주선 작품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6월 1일 ~ 7월 4일	꿈을 전하는 '구름 물고기 展'	서구문화회관 아트 갤러리
6월 3일 ~ 6월 14일	양의석 회고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6월 3일 ~ 6월 16일	손승범, 인환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6월 3일 ~ 6월 16일	김진경 개인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6월 5일 ~ 6월 11일	인천 현대미술의 흐름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6월 5일 ~ 6월 11일	제6회 청관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6월 12일 ~ 6월 18일	사단법인 민화진흥협회 창립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6월 12일 ~ 6월 18일	인·예·전(인천예술고교 강사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6월 17일 ~ 6월 28일	이것이 인천의 전통회화다(한국화 대제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6월 19일 ~ 6월 25일	포타리프 제2회 회원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6월 19일 ~ 7월 3일	홍대희, 서민의 꿈을 담은 민화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6월 19일 ~ 7월 3일	황은자, 문자도 이야기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6월 26일 ~ 7월 2일	제27회 인천광역시 서예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6월 26일 ~ 7월 2일	제25회 인천서예술연구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비틀스, 아바, 조용필에서 한류스타까지 – 대중음악 들여다보기

향긋한 커피와 함께 여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커피 콘서트 6월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 평론의 선구자’, ‘국내 최고의 대중문화 평론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가 진행한다. 임진모는 비틀스, 아바, 조용필, 싸이, 엑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대중음악을 소개하고 대중문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음악을 향한 끝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 있는 그의 음악이야기가 흥미롭다.

커피콘서트Ⅵ 임진모의 비틀스부터 EXO까지

일시 6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1만5천원
문의 ☎1588-2341



첼리스트 요하네스 모저의 첫 내한, 열정과 서정의 완벽한 조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명품클래식시리즈’의 두 번째는 관객을 압도하는 지적인 열정의 첼리스트 요하네스 모저와 시적인 서정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듀오 무대다. 특히 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하네스 모저의 국내 첫 내한이기에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연주자는 그들의 음악적 거점이자 독일 전통 클래식 of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제1번 마단조’와 러시아의 대표 실내악 중 하나로 꼽히는 쇼스타코비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더불어 한국 작곡가 류재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며, 풍부한 음악적 역량을 국내 관객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명품클래식시리즈Ⅱ
‘첼리스트 요하네스 모저 & 피아니스트 윤홍천 듀오’**

일시 6월 6일(토) 오후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588-2341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 어린이연극 ‘우리는 친구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시리즈 어린이명작무대의 첫 번째 작품인 ‘우리는 친구다’는 초등학교 3학년인 ‘민호’와 유치원생인 ‘슬기’ 남매가 놀이터에서 만난 ‘몽치’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라이브 음악과 함께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다. 공연 내내 객석의 아이들은 우리의 친구 슬기, 민호, 몽치에게 동화되어 웃고, 손뼉 치고, 열광한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우리는 친구다’는 어마어마한 모험이나 사건을 등장시키는 대신 초등학교생들의 일상을 과장하거나 심각하지 않게 그려내며 아이들의 진지한 고민과 소망을 유쾌하게 담고 있다.

스테이지149 – 어린이명작무대Ⅰ ‘우리는 친구다’

일시 6월 25일(목)~27일(토)
목·금 오전 10시 /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1588-2341



예비부모와 새 생명에게 보내는 축하와 응원의 음악회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새 생명 탄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사랑 태교음악회’로 인천의 예비부모들을 만난다. 경인방송 원기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서울여성병원 김달현 부원장이 태교 관련 강의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샌드아트 신미리 작가가 함께해 색다른 무대연출도 선보인다.

사랑스러운 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결혼 초 갈 등시기의 분위기를 담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g단조’, 삶의 동반자에게 들려주고픈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등 주옥같은 곡들을 마에스트로 이경구의 지휘, 플루티스트 김상애,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의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사랑태교음악회’

일정 6월 26일(금)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초대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초대 신청 가능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춤꾼과 관객이 하나 되어, 소통과 치유의 춤 나누다

춤추는 도시 인천 : 공감(共感)

흥겹고 즐거운 춤의 축제가 열린다. 열린 무대,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춤꾼과 일반인이 하나가 되는 인천의 춤 축제 ‘춤추는 도시-인천 : 공감(共感)’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전역에서 펼쳐진다. 2008년에 시작한 ‘춤추는 도시-인천’은 ‘항상 곁에 있는 춤’이라는 슬로건으로 춤의 매력을 한껏 선사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도심형 문화예술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공감(共感)’이라는 부제처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마음의 소통과 치유를 기리는 춤을 나누다, 이해와 소통의 몸짓을 통해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여한다.

‘춤추는 도시-인천’은 체험프로그램과 공연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백스테이지 및 인천시립무용단 연습실에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 ‘보고(寶庫)’는 춤을 보고, 춰 보고, 즐겨보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체험이다. 인천시립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을 보고, 그 춤을 함께 춰보고, 그를 통해 우리 춤을 진정으로 즐겨보며 춤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프로그램은 인천 각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펼쳐진다. 개막공연 ‘아라의 서(書)’는 6월 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인천시립무용단의 제78회 정기공연 ‘아라의 서’를 야외공연장용으로 재구성한 이 작품은 전통 레퍼토리와 창작 춤이 조화롭게 망라된 것으로, 춤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우리 춤에 대한 입문서와 같은 공연이 될 것이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인천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소중한 공연장인 부평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너울너울 춤 나누다’는 춤 예술 향유 인구 확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무대이다. 6월 14일에는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관객과 만남을 가지며, 20일에는 월미도 분수광장 특설무대에서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용 작품을 선보인다.

날짜	공연구분	공연장소
9일(화)	체험프로그램 '보고' (09:30~11:30)	인천시립무용단 연습실 및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
	체험프로그램 '보고' (09:30~11:30)	
10일(수)	체험프로그램 '보고' (13:30~14:30)	
	체험프로그램 '보고' (13:30~14:30)	
12일(금)	개막공연 '아라의 서' (20:00~21: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13일(토)	'릴레이댄스' (19:00~21: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14일(일)	너울너울 춤 나누다 - 부평아트센터 특별공연 (16:00~17:00)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20일(토)	너울너울 춤 나누다 - 월미도 특별공연 (19:30~21:00)	월미도 분수광장 특설무대





“인천만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해야”

‘현답 시장실’, 중·동구 시정현장 방문

유정복 시장이 ‘현답 시장실’ 시정 주요 현장으로 지난달 26일 중·동구 일원 5개 지역을 둘러봤다.

이번 일정은 4월 남동구와 5월 18일 서구에 이어 세 번째로, 평소 원도심과 인천의 가치창조에 관심이 많은 유 시장은 이날 현장방문 후 ‘인천역사문화탐방’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먼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국가 대표급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종도 오성산 예정부지를 둘러보며 문제점 및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영종도 자기부상열차 차량기지를 방문, 개통 준비상황과 운영시스템 등을 청취하고 차량에 직접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시승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국내 최초의 상용화 자기부상열차인 점을 고려, 승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개통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일정으로 월미공원을 찾은 유정복 시장은 월미문화관 내 전통음식체험



관에서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 김재열 인천예총 회장,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 등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후 월미공원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월미전망대, 전통정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유 시장은 이날 ‘현답 시장실’ 일정을 마친 후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의 안내로 ‘인천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인천

역사문화 5권역 중 제1권역인 일본제18은행, 일본제1은행, 인천일본우선주식회사,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제물포구락부와 인천지역사자료관 등을 둘러본 후 “인천시는 유난히 최고(最古) 최초의 역사 및 문화가 많을 뿐더러, 스토리텔링화 하여 인천만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하다”며,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을 인천 가치 재창조와 관련해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440-2422

‘사막화 방지’ 위해 몽골서 나무 7천 그루 심어

우리 시는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몽골 다신칠링숨에서 희망의 숲 조림 행사를 실시했다. 김말숙 인천YWCA 회장, 남기중 한국청소년인천연맹 총장 등 인천지역 단체 대표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원 활동단과 몽골 현지 주민 100여 명이 조림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다신칠링숨 10ha 면적에 구덩이를 파고 포플러, 비솔나무, 차차르강 등 방풍림과 유실수 7천 그루를 번갈아 심었다.

문의 시 녹색기후정책관실 ☎440-8583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복합상업시설인 ‘송도 페스티벌 워크 프로젝트 (Songdo Festival Walk Project : 스트리트몰)’ 1단계 사업이 오는 11월 착공된다. ‘송도 페스티벌 워크’는 기존의 먹거리와 패션의 단순 종합상업시설에서 벗어나 ‘한국을 대표하는 걷고 싶은 거리’라는 메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여가, 문화, 힐링이 함께 어우러진 가족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또한,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이 있는 거리에 초점을 맞춰 조성한다. 경제청 관계자는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스트리트몰이 오는 2017년 2월 문 열면 인근 쇼핑센터와 연계되는 최대의 쇼핑 클러스터가 구축돼 송도국제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222

송도 ‘걷고 싶은 거리’ 11월 착공



‘입간판 공해에서 해방’...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

우리 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개정조례’를 지난달 26일 공포, 시행했다. 업소 홍보를 위해 건물 앞에 세워두는 입간판은 불법 시설물로 간주돼 왔지만, 작년 12월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됐다. 시는 행자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 조례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입간판은 신고제로 관리되며 건물 부지 내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또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 사용은 금지되고 영업시간에만 입간판을 둘 수 있으며, 입간판이 건물 부지를 넘어 도로에 나와 있거나 일정 규격을 초과하면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시 도시경관과 ☎440-4773

옹진군 덕적군도 내 지도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 시설이 조성된다.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대상에 선정돼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지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와 시비 13억 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지도에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을 구축, 신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지도는 28명이 사는 낙도로, 육지와 전력계통이 연결되지 않아 소규모 발전소에 의존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440-4304

옹진군 지도에 신재생에너지 자립시설 생긴다



교동도 주민 ‘연륙교 24시간 자유 통행’

강화도 교동도 주민에 한해 지난달 20일부터 교동 연륙교를 24시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강화군은 해병대2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 결과 연륙교 통행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교동도 일부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연륙교를 통과하려면 군 검문을 받아야 하고 통행 시간도 제한돼 있었다. 섬 출입증을 가진 교동도 주민의 연륙교 통행 시간은 오전 4시 이후부터 자정까지였으나 24시간으로 제한이 없어졌다. 그러나 주민 외 방문객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뒤 30분까지로 이전과 같이 통행 시간이 제한된다.

문의 강화군청 ☎930-3732



NEWS BRIEF

‘온통(ON通)인천’으로 생생하게 즐기세요~



이제 인천의 여행과 관광,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소식들을 라이브 소셜 방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시는 PC 기반의 인터넷 방송을 모바일 중심의 라이브 소셜 방송시스템으로 재구축한 ‘온통(ON通)인천(vincheongokr)’의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했다. 소셜방송이란 SNS와 인터넷 생방송이 합쳐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신개념 라이브방송으로, 시가 구축한 소셜방송 ‘온통(ON通)인천’은 인사이드인천, 타임라인, 여행&관광, 행사&축제, 강좌&공연, 시민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ActiveX 설치없이 모든 브라우저 지원, SNS 댓글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일일편성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의 대변인실 ☎440-3043

120미추홀콜센터, 송도 미추홀타워로 이전

365일 24시간 단순·반복 민원에 대한 친절, 신속, 정확한 전문상담을 통해 시민 고객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시의 ‘120미추홀콜센터’가 시청 IDC건물에서 송도 미추홀타워로 이전했다.

120미추홀콜센터 이전 작업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문의가 비교적 적은 주말을 이용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뤄졌다.

120미추홀콜센터는 2011년 12월 상담을 시작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누계 1만 827천482건 상담이 이뤄졌으며, 평일에는 평균 3천065건, 주말에는 평균 679건 상담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35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에 30억 지원

우리 시는 이달 30일까지 ‘2015년 중견 성장사다리 기업’ 신청을 받는다.

중견 성장사다리 기업은 혁신역량과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말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440-4252

인천표면처리센터 ‘요진 코아텍’기공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최신 친환경 표면처리시설인 인천표면처리센터 ‘요진코아텍(투시도)’의 시공식이 지난달 18일 신축부지에서 있었다.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48블록에 자리한 요진코아텍은 대지 면적 2만 3141㎡에 지하 1층~지상 8층의 연면적 12만9123㎡ 규모로 신축된다. 216실의 공장과 108실의 기숙사·창고·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요진코아텍은 인천에만 550여 개의 표면처리업체가 흩어져 있는 것을 집중화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요진코아텍’은 이달 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시 산업진흥과 ☎440-4287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전국 1위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우리 시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 감사 면제,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행정자치부 주관 워크숍 참여, 우수 사례 발표회 참가,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인천테크노파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복합쇼핑몰 투자유치(3천억 원)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취·등록세 수입 150억 원, 고용창출 2천500명, 연간 관광객 수 700만 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의 시 규제개혁 추진단 ☎440-1633

인천 최고의 셰프에 최병주 씨



우리 시가 지난달 20일 송도컨벤시아 제30외전시장에서 개최한 ‘(Incheon) 셰프를 찾아라’ 요리경연대회에서 JK아트컨벤션 소속 최병주 씨가 인천 최고의 셰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2015 세계교육포럼과 연계해 개최된 이번 요리경연대회는 인천 음식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하고 글로벌 우수 셰프 발굴 및 학생들의 인재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과 음식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 상품화와 메뉴 개발 보급을 위해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이용해 요리경연을 펼쳤다.

요리경연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치러졌으며, 학생부는 개인 10명과 단체 20팀(3인1팀), 일반부는 개인 10명과 단체 10팀(3인1팀)이 참가했다.

문의 시 위생안전과 ☎440-2763

송도~남동공단 연결 송도4교 7월 개통

인천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을 잇는 송도4교를 오는 7월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인천신항 1선석이 이달 부분 개장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근 송도1교의 체증이 심해질 것에 대비해 송도4교 개통 시기를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겼다.

송도4교가 포함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진입도로는 총 연장 5.28km, 왕복 7~9차로로 2009년 착공 이후 국·시비 1천930억 원이 투입됐다.

송도4교가 개통되면 인천신항과 LNG 인수기지 등 송도국제도시에서 남동공단을 포함한 인천 도심, 남동C, 제3경인고속도로 등과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562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인문·문화 중심도시로

우리 시가 ‘2015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대전 개최지 공모에 응모해 경북 구미시와 강원 강릉시와 경합을 벌인 결과,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전 국가적인 독서박람회 행사다.

국비 2억 원이 지원되며, 오는 9월 독서의 달에 3일간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한편 시는,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가 지난달 개막된 데 이어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인천이 인문·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03

“전문성 키워 민생복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 이한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50)은 인천 섬 투어와 위원회의 분야별 우수 단체 간담회와 사업 점검을 올해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섬 투어로는 지난 4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1차로 다녀왔고, 앞으로도 다섯 번 섬 투어를 기획하고 있다. 인천의 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섬 중 하나인 울릉도와, 갯벌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신안군의 증도, 청산도 등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작년 7월 제7대 의회 출범 후 이 위원장은 인천의 문화, 복지, 체육 등 소관 분야 업무를 제대로 살피자 꼼꼼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각 분야 단체, 전문가들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핵심 사항을 파악해 왔다. 의원들이 전문성을 키워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확고하다. 올해부터는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문복위 소관 사업을 매의 눈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인천의 주요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2015 인천 책의 수도 사업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월 1회씩 모여 책임기를 진행했고, 4월엔 복지와 관련한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푸는 것이 마땅한 반면,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 개회 기간에는 모든 활동을 의회에 집중한다. 지역구 행사가 있더라도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시의원의 첫째 역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의회기간 중의 지역구 활동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주민들을 만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재선의원인 이 위원장은, 경인아라뱃길 건설 당



시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원해 수질을 개선하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한 점을 의정활동 중의 최고 보람으로 여겼다.

이 위원장은 인천의 문화, 관광에 관심이 많다. 획일적이고 재미없는 관광자원을 만들기보다는 인천 지역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갯벌국립공원, 해상시립공원 등을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제안했다. 또 매년 수만 명이 다녀가는 계양산도 기존 문화재와 자원을 잘 정비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생 복지가 재정문제로 어려워지고 있는 데 대해 좌충우돌하게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시민복지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열심히 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계양산 숲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계양산 밑에서 태어났기에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낍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거나 기억나는 일은?

6대 시의원이 된 후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백지화하고 공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점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가볼만한 곳 세 곳을 추천하신다면?

이작도, 차이나타운, 송도국제도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작도는 개방되어 있지만 섬이 잘 보존된 곳이고, 차이나타운은 다른 곳에는 없는 인천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장소로,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곳이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평소 체력을 위해 하시는 운동은?

틈나는 대로 시민들과 족구, 궁도,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애장품과 그 애장품에 얹힌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우표입니다. 학생 때부터 우표를 모아왔습니다.

애창곡은 무엇인가요?

평소에는 김현식의 ‘골목길’을 좋아하고, 어르신들 앞에서는 ‘강원도아리랑’, 주민들과 행사할 때는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잘 부릅니다.

올해 문화복지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소망은?

여름 비하기 때 아내와 함께 많이 걸을 계획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시민 어려움 보듬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 안영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영수(63) 산업경제위원장은 올해 위원회의 주요활동을 민생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두고 있다. 인천시의 산업경제 분야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도 막중하다.

안 위원장은 워크숍, 연찬회 등을 자주 열어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집행부 감시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한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왔다. 특히 덴마크에서 2050년까지 화석 연료를 제로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플랜에 주목했다. 안 위원장은 인천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부각할 생각이다.

안 위원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와 정체성 찾기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업무를 잘 살펴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사업 등을 걸러내 시가 하루빨리 재정하는 데 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안 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를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인천시가 매년 집행하는 예산이 8조원에 달하는데, 시의원 개인이 일일이 예산내역을 심의하면서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의정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선의 안 위원장은 의정활동 중 강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대여 은행을 만든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다. 농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기계대여은행에 사용료만 내면 다양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또 강화에 영화관과 전시관을 건립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강화도에는 전시, 그림 등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많지만 전시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영화관이 없어 영화 한편 보려면 인천, 일산, 서울로 나가야 했다. 그는 종합전시관과 강화문예회관 내의 작은 영화관을 설치를 주도했다.

안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소문나 있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오랫동안의 공직생활 경험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응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강화에 복문길이 있습니다. 고려궁지를 둘러보며 걷는 길인데, 봄에 꽃들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거나 기억나는 일은?

제 6,7대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입니다. 특히 7대 의회 때 무투표 당선됐을 때 기뻛고, 시민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가볼만한 곳 세 곳을 추천하신다면?

강화 전등사, 교동 화개산, 강화 동막해수욕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등사는 신라시대의 고찰로, 화개산은 나들이길이 좋은 청정한 산이고, 동막해수욕장은 소나무가 멋진 해수욕장입니다.

평소 체력을 위해 하시는 운동은?

1년 전부터 매일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감기에 안 걸려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애장품과 그 애장품에 얹힌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간 부산 태종대에서 찍은 신혼 사진입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참 예뻐했습니다.

최근 본 영화와 감동적인 장면을 소개해 주세요.

강화 작은 영화관에서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온 고난이 그대로 녹아있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하시나요?

독서를 좋아합니다. 위인전과 역대 대통령들의 회고록을 즐겨 읽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5.16 전에 썼다는 ‘사즉필생(死即必生)’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경제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소망은?

집사람의 건강과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보내 손주를 얻는 것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28개 안건 처리

인천시의회의는 지난달 1일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상임위 통과안대로 가결했다. 수정 조례안에는 '화학물질 시설 감시를 강화할 강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환경·시민단체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수정안은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두고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 자문을 넘어 심의까지 확대했다. 정기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지난달 21일자로 활동이 종료된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제224회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으며, 제225회 정례회는 이달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처리, 시정질문 등이 예정됐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 유엔기구 4곳 방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 센터(UN CTRAL RCAP) 등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있는 유엔 기구 4곳을 방문했다. 차준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각 유엔 기구의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엔 기구 대표들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그간의 활동상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적 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 기획위 위원들은 "유엔 기구가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많은 노력과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시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멀게 느끼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좀 더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청면 방문, 주민과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백령면 주민과 간담회에 이어 21일 대청면에 방문하여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도시정책과장 등 집행부 관계관과 이장단, 선주협회,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인 김경선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서해 5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 집행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찾아가는 의정교실' 능내초등학교에서 시작

인천시의회의는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자 작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의정교실'을 지난달 19일 능내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올해 첫 번째로 개최했다. 찾아가는 의정교실은 학교의 지리적 여건이나 수업일정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시의회가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개최하는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소개 강의와 홍보동영상 시청, 회의 진행방법 설명 및 모의회의, 시의원과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학생들의 충분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날 의정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배우고 시의원님들이 우리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반대 한·일 시민단체 의장 면담



일본 교과서 왜곡에 반대하는 한국·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양미강 공동운영위원장, '요코하마 교과서 채택 연례회' 회원인 야기 토시나가 등 한·일 시민단체 회원 5명은 이날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역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일본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 의장은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란 말이 있듯이, 어린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제 있는 교과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날엔 배극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역사 왜곡 교과서가 일본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천 항공산업도시로 발전 정부 지원 촉구

인천시의회의는 동북아 허브공항을 낀 인천이 항공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인천국제공항 단지에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기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종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기 재난 예방을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지역 발전에 참여하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주문했다.

백령도 대청도 초·중·고 시설 점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의 김경선 의원과 인천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백령도 및 대청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백령중·고등학교와 대청초·중·고의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에 집단 건의사항을 제출함에 따라 계획됐다. 특히, 백령중·고등학교는 급식실이 오래되고 공간이 부족하여 학년별로 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 급식환경이 열악하여 급식실 개축이 시급했다. 대청 초·중·고는 서해 5도에 있는 학교 중 유일하게 다목적강당이 없어서 학생뿐 아니라 대청도민 전체가 다목적강당 설치를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어 이번 방문시에 사업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와 인천대학교, 의정활동 지원 업무협약



인천시의회와 인천대학교는 지난달 13일(수)에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발전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3년 6월 10일 제6대 의회 때 체결한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보완·수정하여 제7대 의회 기간에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보완 내용은 시의원이 대학원 재학 시는 물론 대학(학과, 학부)에 재학 시에도 수업료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시의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지원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의회는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인천대학교는 정책개발과 시민 소통을 위한 활동 등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상호협력과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분노 수거 위해 우마차 50대 동원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통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될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_편집자 주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분노 넘치면 황색기 달자

종전 주간에 실시하던 분노 처리를 야간에만 실시키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간에 분노를 실은 우마차가 시중을 운행함은 시민위생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상 도는 외국인들이 볼 때 불미한 인상을 주게 됨으로 분노 수거작업은 야간에만 실시하게 된 것이다. 분노가 넘칠 경우에는 문 앞에 황색기를 달아 표시하기로 되었다고 하며 인천시에서는 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마차 50대를 배차 동원하니 시민 각자는 각별 유의하여 분노 수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1953년 6월 3일자)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광견(狂犬)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 산업과에서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관하 전역에 걸쳐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금번 실시 기간 중에 주사를 맞지 않는 축견(畜犬)은 가축전염병예방령 제 17조에 의하여 야견 박살을 단행할 것으로 한 마리로 빠짐없이 주사를 맞도록 하기 바란다. (1953년 6월 10일자)

충훈탑 제막식 거행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에서 피 흘려 싸우다 애석하게도 흉탄을 받고 이 나라의 수호신이 된 전몰용사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지난 9일 하오 1시 만국공원에 건립되는 충훈탑 제막식과 아울러 인천 출신 전몰용사의 합동 위령제가 재향군인회 인천시연합회 주최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식장인 만국공원에는 450주의 위패가 탑대에 안치되자 유가족들의 애절한 곡성이 폭발되었으며 착잡한 관중의 얼굴에 애도의 표정이 가득 차 있었다. (1953년 6월 24일자)

백합을 잡지 마시오

김정렬 인천시장은 백합(생합)의 산란기를 앞두고 이의 채포(採捕)를 금지함으로서 영세 어민의 앞날의 생계와 수산자원의 증식 확보를 기함은 물론 향도 인천의 토산품으로 자랑할 수 있는 패류 채포 금지에 일반시민의 적극 협조 있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광범한 송도 일대에는 조개류 번식에 가장 입지적 호조건을 구비한 천혜의 어장으로서 천여 호 영세 어민의 생명선이기도 한데 8.15 해방 이후 어업 도



인천항토사의 원전(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일 쉼 ‘인천석굴’ 발간 광고(1955. 6. 13). 미두의 인천, 정미의 인천, 항일 투쟁에 빛나는 인천이라고 쓴 광고 문구가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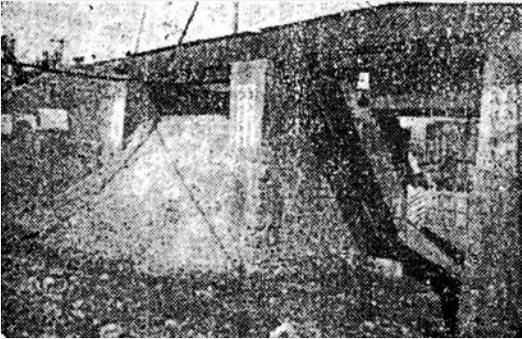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작약도의 여름 광고.(1955. 6. 20) 중구 전동 해군병원 옆에 연락사무소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의를 망각한 일부 사람은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남획한 결과 어장이 대부분 소진되었다. 특히 인천의 토산품으로 널리 선전된 ‘백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영세 어민의 앞날의 생계를 위해서는 물론 수산자원의 증식 확보상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다. 따라서 시로서는 단기 4286년(서기 1953년)부터 획기적인 패류 증산을 목표로 일정한 해면을 획정하여 양식구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채포를 금지하였다가 춘궁기에 이를 개방하여 어촌 경제에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여타 해면에 있어서도 크기 미달의 조개는 채포를 엄중 단속 중에 있으나 특히 패류 중 백합에 있어서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50일 간은 산란양식 기간이다. 해당 어민이나 일반시민은 이 취지를 헤량하시고 각종 취채 규칙을 준수 할 것은 물론 자아반성하여 천혜의 자원을 자손만대에 계승 향유하려는 넓은 시야에서 이 기간 중은 백합 잡이를 일절 중지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나이다.

(1955년 6월 13일자)

나병 환자 조사에 협조

인천시 보건과에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국민 보건에 일대 위협을 줌은 물론 나병 환자들의 예방 집단 수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각 처에 산재한 재가 및 부랑 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된 동 환자들은 중앙 방침에 의하여 요양원에 입원케 되리라고 하는 바 동 환



1955년 6월 확장 공사 중에 있는 배다리철교

자들의 조사에 있어 관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1955년 6월 13일자)

폭우 속 6.25전란 5주년 시민대회

붉은 도당들의 불법남침으로 양과 같이 온순하게 자라나던 자유의 대만을 피바다와 불더미로 화하게 하던 원한의 6.25 분노와 굴욕에 열킨 의의 깊은 5년 전 이날의 비분을 상기하며 멸공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족의 거룩한 성전은 마침내 즐기차게 내리는 빗발 속을 헤치며 멸공복진의 구호를 목 메이도록 외치는 분노성이 도원 원두에서 터지고야 말았다. 이날 도원 원두에서는 수만 시민 남녀 학생 사회단체 그리고 시내 각 기관장을 비롯한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상오 10시 정각 6.25 전란 제 5주년을 맞는 시민대회가 거행되었다.

(1955년 6월 27일자)

자녀에게 선물하는 사랑의 언어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녀에게 선물하는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부모성 회복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부모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일시 12일(금), 19일(금)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실
인원 학령기(초3~고3) 자녀를 둔 부모 30명(선착순)
참가비 1만원(입금 계좌 : 기업은행 121-116415-04-159)
문의 721-2316

차오름 문화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교육프로그램 '2015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내 맘 속 감정을 꺼내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6월 13일~8월 22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30분
 (총 10회, 8월 15일 제외)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참가대상 초등학교 1~2학년, 12명
참가비 무료
신청 6월 5일(금) 오전 10시, 부평문화사랑방 홈페이지
 '예술교육·교육프로그램 신청' 게시판 선착순 접수
문의 505-5951, www.bpcl.or.kr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첨단 해양장비를 전시해 해양문화 활성화 및 해양 산업 종사자들간에 교류의 장이 될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명칭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CGS 2015)
일정 6월 17(수)~19(금), 3일간
장소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민안전처,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도시공사(송도컨벤시아 운영)
부대행사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국제해상치안 콘퍼런스 등
문의 440-1524

仁文아카데미 등 문화행사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6월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팩 마수 예술극장
 - 내용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 관람 영화, 공연 프로그램 운영
 - 제목 : 라퐁젤
 - 일시 : 6월 24일(수) 오후 7시~
 -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 관람료 : 무료
 - 신청 : 선착순 100명 전화 신청
 - 문의처 : 850-6030

인천도시건축학교
 - 내용 : 인천근대 건축물을 저금통으로 만드는 어린이 체험 교육
 - 일시 : 5월~6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4층 교육프로그램실
 - 대상 : 어린이 6~7세(1회당 15명 내외)
 - 참가비 : 무료(재료비 무료)
 - 신청 : 선착순 전화 신청
 - 문의처 : 850-6030

仁文아카데미
 - 내용 : 세계 유명 도시 속 박물관 기행
 - 일시 : 5월~6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실
 - 대상 : 일반인 100명
 - 참가비 : 무료
 - 신청 : 선착순 전화 신청
 - 문의처 : 850-6016

인천지하철 2호선 현장견학 참가자 모집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현장견학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모집
견학일정 6월 24일, 남동구 간석동 본부 회의실에서 2호선 홍보 동영상 시청, 종합사령실 견학, 남동구 차량기지·227정거장 방문, 차량 시승 등의 순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
견학신청 6월 17일까지 홈페이지(urail.incheon.go.kr)
문의 451-2827

6월의 문화행사를 즐기세요

(재)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송도 트라이불에서는 시민들에게 진한 감동과 재미를 주는 6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엽니다. 수준 높은 문화의 향연과 함께 하세요.

2015 금요낭만다방
 명사와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 트라이불 금요낭만다방. 2015년에는 더 깊은 이야기, 더 진한 감동으로 인천 시민을 찾아갑니다.

• 일시 : 6월 12일(금) 저녁 8시
 • 장소 : 송도 트라이불 공연장(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
 • 관람료 : 무료(홈페이지 예약 www.tribowl.kr)
 • 출연자 : 연극인 박정자, 시인 나태주, 재즈 기타리스트 이수진
 • 내용 : 2015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한 낭독 콘서트 및 재즈공연 등
 • 문의 : 760-1014

트라이불 클래식 시리즈 IV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클래식 음악가들을 초청해 정기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일시 : 6월 19일(금) 저녁 8시
 • 장소 : 송도 트라이불 공연장(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
 • 관람료 : 무료(홈페이지 예약 www.tribowl.kr)
 • 연령 : 만 7세 이상
 • 출연자 : 인천시립합창단 앙상블
 • 내용 : 클래식 공연
 • 문의 : 760-1014

2015 트라이불 재즈 페스티벌
 국내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해 독특한 건축물에서 즐기는 색다른 재즈 무대를 선보입니다.

• 프로그램 일시 : 6월 26일(금)~28일(일)
 6월 26일(금) 저녁 8시 - 재즈밴드 프렐류드
 6월 27일(토) 오후 2시 - 이채연루트
 6월 27일(토) 오후 4시 30분 - 고희안 트리오 X 지선
 6월 27일(토) 오후 7시 - JSFA
 6월 28일(일) 오후 2시 - 골든스윙밴드
 6월 28일(일) 오후 4시 30분 - 윤석철 트리오
 6월 28일(일) 오후 7시 - 신현필 밴드
 • 장소 : 송도 트라이불 공연장 (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
 • 관람료 : 1회권 1만원, 1일권 2만원, 3일권 4만원 (예매 수수료 별도)
 • 문의 : 760-1013

현충일에는 조기(弔旗)를 답시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가 기념일을 맞아 조기를 달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합니다.

조기(弔旗)를 다는 시간은?
 • 게양일시 : 6월 6일(토) 오전 7시~오후 6시
 • 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국기도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는 조기를 게양합니다.
 • 울타리기, 군집기, 기관기 등도 모두 조기(弔旗)로 답니다.

조기(弔旗)를 다는 방법은?
 • 깃봉에서 깃폭만큼 내려서 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내려야 합니다.

행복나눔 '프리 마켓' 운영

인천시는 인천 지역의 여성단체 활성화와 녹색 나눔 실천을 위해 행복나눔 '프리 마켓' 을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6월 5일(금)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대상 인천시, 군·구 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사회교육기관 및 일반 주민 1천명
주요내용
 • 1부 행사(오전 11시~11시 30분) : 개장 기념행사
 • 2부 행사(오전 11시 30분~오후 5시)
 - 재활용 마당 : 재활용 생활용품 판매
 - 체험 마당 : 재활용 리폼, 천연비누 만들기, 건강체험, 기후변화 체험, 환경체험 등
 - 직거래 장터 : 경북여협, 강화, 웅진 특산물, 인천지역 상품 등
 - 애장품 경매, 먹거리 장터 등
문의 440-2862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UCC 공모전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실천 주체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최고의 기업, 일·가정 양립 Champion!

대상 대한민국 소재의 기업·기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

공모기간 5월 19(화)~6월 12(금) 오후 6시

공모방법 위민넷(www.women.go.kr) 공모전 내 페이지

공모주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우수제도 및 사례 소개 등
문의 440-2872

소상공인 위한 2015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인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2015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을 융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융자계획

• 사업 :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대상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자로서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대상 자금

– 창업·기존 점포시설 정비자금 및 연계운영자금

※ 창업시설(사업자등록 후 1개월부터 6개월 이내) 기존시설(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창업시설 정비자금 2천만원(연계운영자금 포함)

– 기존점포시설 개선자금 1천만원(연계운영자금 포함)

※ 융자총액 : 40억원

•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금리 : 1.95%(변동금리)

•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 상환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융자신청

– 접수 기간 : 5월 14일~11월 30일(자금 소진시 조기종료)

– 접수처 : (사전 신용문의) 신용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부동산 담보-신한은행 / (접수) 군구 지역경제과

– 융자취급은행 : 신한은행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 신용보증서 발급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2),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 부동산담보, 기타보증 :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접수 : 군·구 지역경제과(7업지원과)

– 기타 : 인천시 생활경제과(440-4224)

인천향교 명륜학당 수강생 모집

인천향교에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양강좌를 명륜학당에서 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모집기간 2015년도 연중모집 선착순 마감

모집대상 인천시 거주 성인 (중, 동, 남, 남동, 연수구, 옹진군, 시흥시)

수강료 월 1만원 (여러 과목 수강 경우 수강료 할인을 적용)

모집강좌 및 인원

	강좌명	강좌일시	수강인원	수강료	강사	비고
경전교실	논어	매주 목요일 14~16시	30명	월 1만원	김종원	연수문화원 강사
	한문 지도사 양성반	매주 화요일 10~12시	30명	월 1만원	김종원	연수문화원 강사
예절교실	다도 등 생활예절	매주 목요일 14~16시	20명	실비	김귀임	여성유도회지부회장
	풍수 지리학	매주 월요일 10~12시	30명	월 1만원	김영철	정통풍수지리학회
실용기술학교실	명리 상담학	매주 수요일 10~12시 13~15시	30명	월 1만원	서범륜	백민역학연구원
	한글서예	매주 화요일 13~16시	25명	월 1만원	박혁남	빛갤러리학원장
전통문화예술교실	한문서예	매주 금요일 3~16시	25명	월 1만원	박영동	람정서예학원장
	시군자	매주 목요일 10~12시	25명	월 1만원	유호숙	
	전통무용	매주 월요일 13~15시	20명	월 1만원	정애자	
	국악(민요)	매주 수요일 12시 30분 ~14시 30분	20명	월 1만원	유은자	예전국악학원장

수강신청 장소 인천향교유림회관 4층 (남구 매소홀로 442)

문의 876-2041, 7041

부정부패 척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은 '부정부패 척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분야 부정부패 척결을 주제로 참신하고 재미있는 글짓기 및 포스터

대상 학생중·고등학생, 일반인(대학생·공무원)

※ 1인 1작품 응모 가능

기간 5월 18일(월)~6월 18일(목)

주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제출방법 이메일(ok1398@korea.kr) 또는 우편·방문접수

율목도서관 6월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6월을 맞아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무한상상실 : 스타서빙 이효찬

• 일시 : 6월 28일(일) 오후 3시

• 장소 : 율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 주요내용

– '창의적인 메이커 문화 확산' 무한상상실 모토를 담은 오픈형 특강

– 세상에서 서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하고, 서빙에서 창업까지 성공한 스타 서빙 이효찬(세바시 출연) 강연 진행

– '서빙'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이효찬에게 듣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

• 관람료 : 무료

• 문의 : 770-3806, 3809

어린이자료실 상시프로그램 운영

• 기간 : 1~12월

• 장소 : 율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자료실

• 참여방법 : 어린이자료실 데스크문의, 유선방문 접수 등

• 참가비 : 무료

•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도서관 보고 배우기	운영시기 : 3~11월 참여대상 : 지역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단체(회 20명 이내) 참여방법 : 유선·방문 접수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책 읽어주기, 자유독서 등
율목 밤놀이	운영시기 : 1~12월 참여대상 : 5세~초등 6학년(통합도서대출회원) 참여방법 : 방문 주요내용 : 도서관 방문 시 1회 출석도장 날인, 월 1회 시상
이야기 보따리 술술	운영일시 :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4시 참여대상 : 어린이실 이용자 누구나 참여방법 : 방문 주요내용 : 사서 자원활동가 주체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밤놀이 독서통장	운영시기 : 1~12월 참여대상 : 5세~초등 6학년 참여방법 : 방문 주요내용 : 대출권수 10권1 대상자 독서통장 발급
와글바글 독후퀴즈	참여기간 : 6월 12(금)~28(일) 참여대상 : 7세~초등 6학년 참여방법 : 방문 주요내용 : 선정된 도서를 읽고 퀴즈를 풀어 응모함에 제출

• 문의처 : 770-3808, 3811

7월 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혜택은 더 넓어지고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급여별 혜택 범위가 두터워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내용

• (한행)통합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67만원)

– 선정 시 7가지 급여지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탈락 시 지원 전혀 없음

(개편후)맞춤형 개별급여(선정기준 급여별로 다름)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18만원)

– 선정 시 7가지 급여지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의료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69만원)

– 선정 시 6가지 급여지원(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주거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182만원)

– 선정 시 5가지 급여지원(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 교육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이면 211만원)

– 선정 시 2가지 급여지원(교육, 자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

맞춤형 급여제도에 의한 신규 수급자의 보장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기존 수급자는 신청 필요없음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하면 연간 최대 95만원 절약

승용차선택요일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해소 및 대기오염을 개선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 자율실천 운동입니다. 요일 중 단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95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렌터카 포함)

적용시간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오후 8시(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① 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행정과, 인천시청 광역교통정책관 방문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법인차량일 경우 법인등록증도 지참)

②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 인터넷 신청

문의 440-3863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송의소운동장에서의 체육대회

1978년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렸던 교회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장소는 메인스타디움이 아닌 정구와 핸드볼 경기가 열렸던 소운동장입니다. 이제 공설운동장은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유종하 연수구 앵고개로



장원

아름다운 시절

어린 시절 인근 타 도시에서 살다 온 가족이 인천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인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송도유원지, 수봉공원 등 인천 명소 곳곳을 데려가 주셨지요.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김민겸 남동구 석산로



월미도 최고의 멋쟁이들을 소개합니다!

그 옛날, 한껏 멋을 부리고 사진을 찍은 꼬맹이들.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며 힘들게 찍었던 일은 지금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굿모닝인천 덕분에 사진을 꺼내보며 추억을 되새깁니다.

남희정 남구 매소홀로



그 옛날, 월미도에서 찰칵

1992년 월미도를 배경으로 아이들과 함께 추억 한 장을 남겼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는 큰 아이의 모습이, 그 옛날 월미도처럼 아름답습니다.

최진영 전라북도 군산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BOOK

인천 섬 연구 첫 번째 '교동도'



교동도

지은이 최중기 외

출판사 민속원

출간일 2015년 4월 30일

값 2만9천 원

강화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큰 섬 '교동도'는 역사의 중요성만큼 많은 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교동항교 외에는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아 성문은 부서지고, 성벽과 관청의 돌들은 민가의 주춧돌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교동대교 건설로 유물과 유적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중에 최근 교동도를 집중적으로 조망해 섬의 보존과 발전방향을 모색한 책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 앞 바다 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결성된 연구모임인 인천섬연구모임(공동대표·김원, 최중기, 최원식)이 섬 연구 총서인 '교동도'를 발간했다. 이 책 발간에 참여한 저자는 인천섬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인하대 교수, 조류·식물 연구자, 교동도 향토사학자 등 다채롭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교동도에 대한 소개와 역사적 특성, 갯벌매립의 역사, 한국전쟁 등 교동도의 역사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교동도의 누정시, 개신교 전파와 수용 과정, 훈맹정음의 창시자 박두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3부에는 교동도 주변 하구의 해양학적 특성과 식생, 마을 유래와 특징 등을 실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교동도 주민 구술 생애사와 교동도 기행과 역사 유적, 교동도 좌담회 등을 실어 '교동읍성'을 비롯한 화개산성 등의 복원을 염원하는 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인천섬연구모임에서는 인천섬연구총서 두 번째 시리즈로 '덕적도를 기획 중이며,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아나운서 원기범이 전하는 제대로 통!하는 대화법



소통의 정석

- 인생을 성공으로 리드하는 비밀

지은이 원기범

출판사 도서출판바이펍

출간일 2015년 4월 30일

값 1만2천8백 원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엄마, 아빠랑은 말도 하기 싫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내 말을 듣고 있긴 한 거야?"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대화가 소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잘못된 대화법으로 인해 우리는 때론 오해하기도, 오해받기도 한다.

효과적이고 품격 있는 소통을 연구해 온 아나운서 원기범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20년 경력의 아나운서인 저자는 1만 2천 시간 생방송, 2만 여 명과의 인터뷰 경험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대화법 강의를 해왔다. 실제 강연 현장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이들과 만난 저자는, 이 책에서 효과적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 '소통의 정석'은 '제대로 통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베테랑 아나운서 원기범의 세심하고 편안한 코칭과, 풍부한 사례에 재치 있는 입담이 더해져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 이 책 '소통의 정석'을 통해 '말 면허증'을 취득하고 세상과 제대로 소통해 보자.

※ 이 코너는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천 관련 책을 출간하셨다면 이 지면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픔 이겨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글 전선영 인천스마일센터장



내가 일하는 인천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겪은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심리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나에게 살인, 강도, 폭력, 강간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매일 들으며 사는 게 괜찮은지 묻는다. 뉴스에서처럼 사건 내용만 듣고 본다면 그렇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끔찍한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산다. 그러나 놀랍게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외상을 겪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다. 가까운 사람을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잃는 경험에서부터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를 비롯해 폭력을 겪거나 목격하는 등,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라도 한 번은 고통스럽고 끔찍한 외상을 겪는다.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 불행과 고통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다.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고 약해 보이지만, 외상을 겪은 사람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회복 과정을 통해 치유된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고통과 상처를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아물었는지도 모르게 흉터가 나있다. 다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 어디쯤에 흉터를 한 두개 가지고 있을 것이다.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다시 떠오르고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도 나겠지만, 그때처럼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끔찍한 폭력이나 살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저런 일을 겪고 어떻게 살까?”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도 이겨내고 극복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

난 뒤에 삶과 세상에 대한 더 큰 이해와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고통과 두려움을 딛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외상을 겪고 살아남아 살아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며 우리 가족이며 우리 이웃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예기치 않게 닥친 불의의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촛불과 같으나, 인고의 시간 속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다시 발휘하게 된다. 고통, 절망, 분노, 두려움에 싸여 스마일센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본래 자신의 모습과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는 일은 존재인 인간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을 일깨운다. 나는 스마일센터에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인지 매일 느끼며 산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프리드리히 크리스토퍼 외팅거의 '지혜를 갈구하는 기도'의 일부분이다.

“ 신이여, 저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지혜를 주소서. 신이여, 저에게 시간이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인내를 주소서.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며 어떤 일을 겪었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몽(夢)땅 인천골목



독수리 5형제 전용?

설치 미술, 어렵지 않습니다.

하얀 번기도 얼마든지 '오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골목을 다니다보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종종 접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아 있는 골목 갤러리는

연중무휴, 무료 입장입니다.

— 부평구 산곡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